


# 한-메콩 정상회의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2019. 2. 28(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강병원 · 고용진 · 기동민 · 김상희 · 김선동 · 김정호 · 김종대  
김종민 · 박재호 · 설 훈 · 신동근 · 오제세 · 윤소하 · 윤영일  
윤종필 · 윤호중 · 이명수 · 이원욱 · 장병완 · 전해숙 · 정성호  
정양석 · 조정식 · 천정배 · 최운열 (가나다순)

주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신한대학교 사회적가치추진단  SNUAC  
SHINHAN UNIVERSITY SOCIAL VALUE CREATION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사)아시아교류협력센터, 서울대 통일치의학협력센터, 라파엘인터내셔널  h-well  
Raphael International 국민건강보험

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 목 차

- 환영사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5  
**서갑원** 신한대학교 총장 ..... 7
  
- 축사 **문희상** 국회의장..... 9
  
- 기조연설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의 의의와 한-메콩 관계의 미래**  
**이태호** 외교부 2차관..... 11
  
- 세션 1 **사람(People) 협력: 다층적 보건의료 협력의 현황과 과제**  
  
좌 장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주제발표 **보건의료분야 한-메콩 협력의 의미와 과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17  
  
**동남아 의료인 역량강화사업 경험 공유**  
**신좌섭**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29  
  
**메콩지역 치의학교육 역량증진 사업 성과와 과제**  
**이승표** 서울대 통일치의학협력센터 교수..... 43

- 세션 2    평화(Peace) 협력: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협력의 현황과 미래
  - 좌    장    **박수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 주제발표    메콩지역 대학교류 연계경험과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제언
    - 김영선** 前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61
    - 새로운 평화세대를 위한 한-메콩 고등교육의 협력과 과제
      - 홍문숙** 경희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69
      - 한반도와 메콩지역의 평화협력의 의의와 과제
        - 엄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81
  
- 세션 3    번영(Prosperity) 협력: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한-메콩 경제협력의
  - 현황과 미래
  - 좌    장    **김두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사
  - 주제발표    신남방정책과 한-메콩 경제산업 협력의 현황과 미래
    - 박번순** 고려대 경제통계학부 교수..... 91
    - 한-메콩 경제협력 기업 사례
      - 박창영** 롯데면세점 본부장..... 105
      - 한-메콩 경제협력 기업 사례
        - 강태영** 포스코 경영연구원 연구위원..... 107
  
- 종합토론
  - 좌    장    **이    현** 신한대 사회적가치추진단 교수..... 113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추무진입니다.



**추 무 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모시고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메콩유역 국가를 대상으로 사람(People),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전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아세안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역시 지난 12년간 메콩 유역 국가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와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도전과제를 실행해왔습니다. 현재 재단은 아시아 8개국으로 사업 협력국을 확대하여 현지 보건부와 긴밀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9개국으로부터 온 개발도상국 840명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단의 노력은 앞으로도 이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 예정인 만큼, 아세안 내 개발 격차가 완화되고, 한-메콩 협력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참석자분들이 오늘 세미나에서 한-메콩 협력전략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공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추 무 진**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총장 서갑원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에 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신한대학교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여야 국회의원님, 저희와 함께 공동주관사로 협력해주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사)아시아교류협력센터, 서울대 통일치의학협력센터, 라파엘 인터내셔널, 후원사로 참여해주신 경제단체, 그리고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메콩강 유역의 5개국은 세계가 눈여겨보는 핫 플레이스입니다. 저희 신한대학교 역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의 대학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학생들의 만남이 선행되고 활성화 된다면, 국가 간의 소통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협력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마침맞게도 저번 주에 캄보디아의 대학들을 방문했습니다. 정부 인사들도 만났습니다. 저번과는 대접이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도 훨씬 커졌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신남방정책의 과실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있습니다.



**서 갑 원**

신한대학교 총장

존경하는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 여러분,  
강은 힘이 있습니다. 4대문명은 강물을 먹으며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강의 다툼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강의 소유는 패권과 번영을 낳았습니다.

4,020km의 메콩강은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긴 강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는 12번째라고 합니다. 강의 길이가 길수록 강의 역사는 파란만장합니다. 그만큼 강에 기생하며 사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메콩강 역시 티벳에서 발원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관통해 태평양으로 흐릅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과 견제,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메콩강 유역에서도 새로운 문명이 잉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세기의 번영을 책임질 신경제 문명입니다. 이번 세기의 가장 역동적인 주인공이 아시아 태평양이라면, 그 핵심거점은 여기 메콩강 유역이 될 것입니다.

메콩강에서 커다란 발전의 기회를 찾아야하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전파하고 메콩강의 기적을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메콩강은 그들에게는 성장의 동력이지만, 우리에게도 기회의 강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의 한-메콩 협력 전략 및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의 신(新)남방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전략과 나아가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까지도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토론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신한대학교 총장 서갑원

##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구축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조정식 정책위의장님과 천정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님과 신한대학교 서갑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2011년 시작된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격상시켜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2019년은 3.1 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한-메콩 정상회담이 첫 걸음을 내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추진중인 新남방정책의 핵심이 아세안입니다. 대한민국과 아세안이 사람(People)·공동번영(Prosperity)·평화(Peace)를 위한 미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인적·물적, 외교적 교류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아세안에는 이미 7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활동 중이며,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메콩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다면, 新남방정책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메콩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과감한 외교적,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적·인적·외교적 교류 확대를 통해 아세안은 한반도 평화의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의 번영을 응원하며 함께 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오늘,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 깊은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국회의장 문희상

기조  
연설

#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의 의의와 한-메콩 관계의 미래

이태호 외교부 2차관







# MEMO



세션  
1

# 사람(People) 협력: 다층적 보건의료 협력의 현황과 과제

좌장 **추무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보건의료분야 한-메콩 협력의 의미와 과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동남아 의료인 역량강화사업 경험 공유

**신좌섭**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메콩지역 치의학교육 역량증진 사업 성과와 과제

**이승표** 서울대 통일치의학협력센터 교수



# 보건의료분야 한-메콩 협력의 의미와 과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Health System and 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in GMS countries

Soonman KWON, Ph.D.

Professor/Former Dean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Korean Health Economic Association

Former Chief of Health Sector Group  
Asian Development Bank (ADB)

1



# I. UHC and Financial Protection

**GOAL:** Minimize out-of-pocket (OOP) payment at the point of service and maximize the role of public pre-paid financing such as tax and SHI (Social Health insurance or mandatory health insu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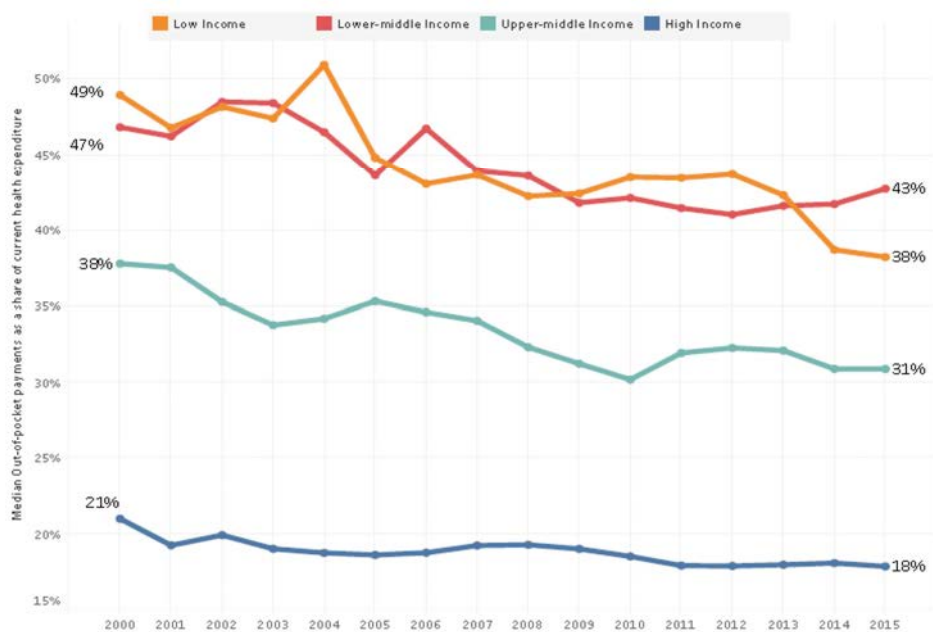
Evidence in LMICs: Huge OOP pay results in

- Catastrophic payment for health care
- Impoverishment due to illness
- Unmet need

Kwon: H Fin for UHC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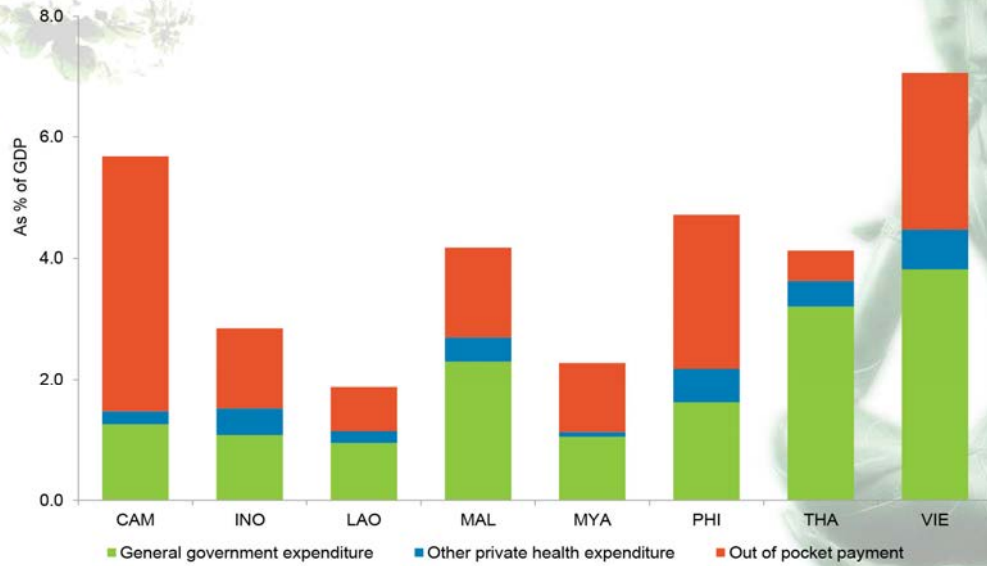
Figure 5.3: Out-of-pocket payments as a share of current health expenditure (median) over time by country income groups



Kwon: H Fin for UHC  
WHO(2017). New Perspectives on Global Health Spending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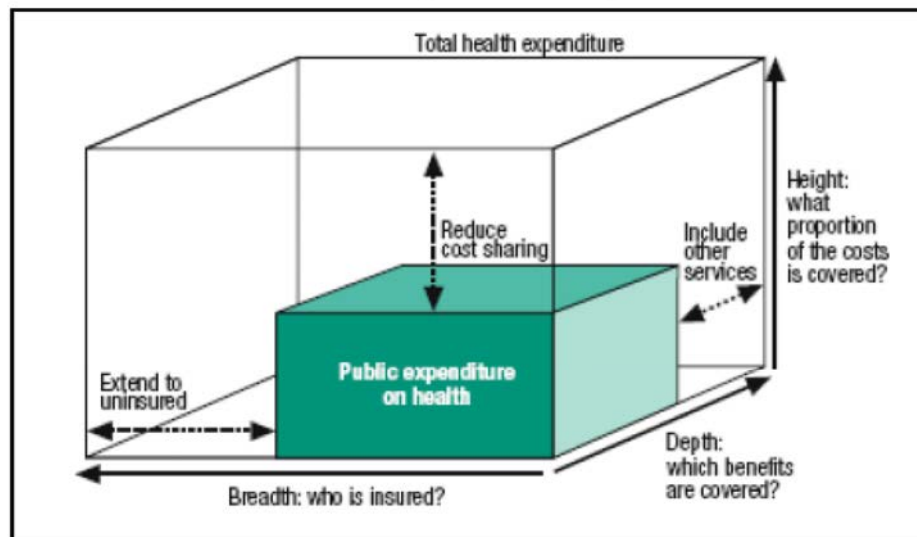
## Total Health Expenditure (Public-Private Mix and % of GDP)



Reference  
Financing data: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http://apps.who.int/nha/database>)

## Financial Protection (WHO)

Figure 1: Three ways of moving towards UC



Source: WHR 2008

Kwon: H Fin for UHC

7



## Incidence of Catastrophic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 – WPRO region

Country	Year	Catastrophic Expenditure (%)		Impoverishment due to OOP Spending (%)	
		10% of HH consumption or income	25% of HH consumption or income	Poverty line: 2011 PPP \$1.90-a-day	Poverty line: 2011 PPP \$3.10-a-day
Australia	2010	3.71	0.50	0.00	0.00
Cambodia	2009	19.97	5.64	2.99	6.15
China	2007	17.71	4.76	2.13	3.09
Fiji	2002	3.37	0.24	–	–
Japan	2008	6.17	2.01	–	–
Malaysia	2004	0.74	0.04	0.09	0.23
Lao PDR	2007	2.98	0.26	0.4	0.99
Mongolia	2012	2.39	0.46	0.02	0.15
Philippines	2015	6.31	1.41	0.83	1.44
South Korea	2008	13.53	4.01	0	0.04
Viet Nam	2014	9.81	2.07	–	–

Source: Tracking UHC: 2017 Global Monitoring Report, WHO & WB

8

## Incidence of Catastrophic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 – SEARO region

Country	Year	Catastrophic Expenditure (%)		Impoverishment due to OOP Health Spending (%)	
		10% of HH consumption or income	25% of HH consumption or income	Poverty line: at 2011 PPP \$1.90-a-day	Poverty line: at 2011 PPP \$3.10-a-day
Bangladesh	2010	13.57	4.84	4.51	4.08
India	2011	17.33	3.9	4.16	4.61
Indonesia	2015	3.61	0.41	0.07	0.66
Maldives	2009	20.14	1.61	0.52	0.63
Nepal	2010	27.41	3.31	1.85	5.63
Sri Lanka	2009	2.89	0.1	0.05	0.44
Thailand	2010	3.38	0.68	0.12	0.34
Timor-Leste	2001	2.59	0	1	0.65

Source: Tracking UHC: 2017 Global Monitoring Report, WHO & WB

Kwon: H Fin for UHC

9

## 2. Where the Money Comes from?: Resource Generation for UHC

Public source of financing for UH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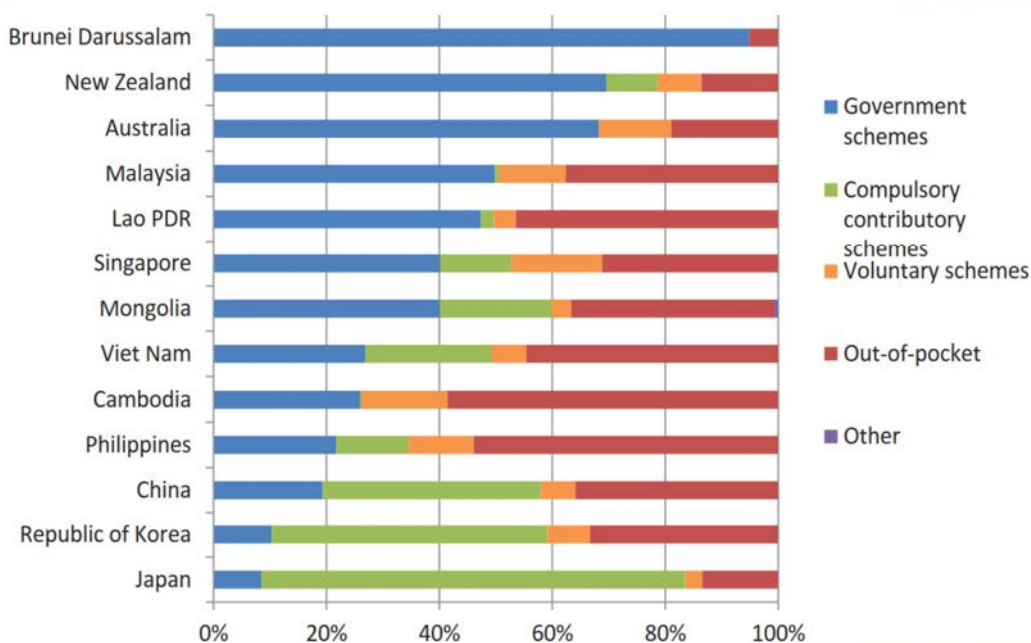
Paradigm Change: Putting various sources of revenue in a big pool for effective purchasing of health care

- Contribution (from both employees and the self employed) : Japan, Korea, Taiwan
- Add Earmarked consumption tax (Ghana), earmarked non-wage income tax (France, Taiwan)
- General revenue: India, China, Thailand, Pakistan

Ayushman Bharat (National Health Protection Scheme) of India, Prime Minister National Health Program of Pakistan:  
 -> Fully-subsidized insurance for the poor (demand-side financing/purchasing with tax funding)

Kwon: H Fin for UHC

10



**FIGURE 5 (Chu, Kwon, Cowley, 2018). Composition of Current Health Expenditures in Asia, 2016**

11



### **3. How to Ensure more People have Access to Health Care?: Population Coverage**

#### Mandatory public financing

-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 Income-based contribution is not possible in voluntary financing

Role of government subsidy and tax financing increases  
(Role of contribution from labor income decreases)

- Low-income countries: informal sector and the poor
- High-income countries: population ageing

Kwon: H Fin for UHC

12



### **Challenges of the Informal Sector**

Premium contribution of the informal sector is a big challenge in the SHI

- Boundary between the informal sector and the poor is not clear in many LICs
- High cost of premium collection
- Funds from the premium of the informal sector is usually small: many SHI systems charge lump-sum premium (not related to income) for the informal sector

Kwon: H Fin for UHC

13



## 4. Governance

How to ensure th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of health financing agency? (with clearly defined roles and responsibility)?

- Relation between government ministry and financing agency: optimum autonomy?
- Transparency, accountability, participation

Conflicts and coordination among government ministries

- MoF, MoH, MoL, Social Security Agency
- Different nature of pension vs. health insurance

Local/state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coordination

- Equity, technical/funding capacity, responsiveness to local needs: e.g., India, China, Japan, Indonesia

Kwon: H Fin for UHC

14

## 5. Service Delivery

### Access to Essential Health Services

(WHO/World Bank, Tacking UHC: 2017 Global Monitoring Report)

Effective service coverage: "People in need of services who receive services of sufficient quality to obtain potential health gains"

Service coverage: "Proportion of people in need of a service that receive it"

- Cannot account for service quality, effectiveness

Proxy measures: utilization rate, service availability, prevalence of risk factors, mortality

Kwon: H Fin for UHC

15

## Indicators for the Coverage of Essential Health Services

4 indicators on reproductive, maternal, and child health:  
family planning, antenatal care (4+), child immunization  
DTP3, child treatment of pneumo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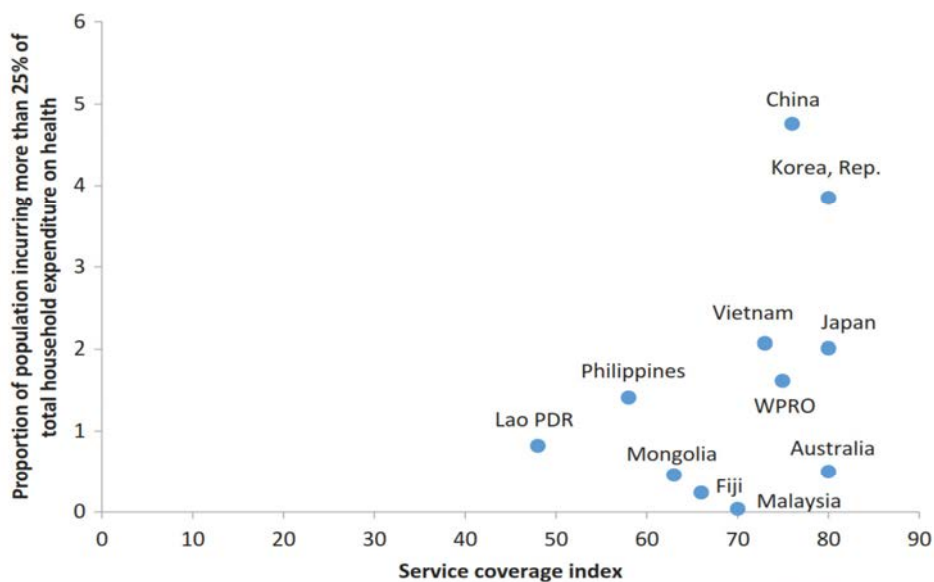
4 indicators on infectious disease control:  
TB effective treatment coverage, HIV (ART), bednets  
(malaria), sanitation

4 indicators on NCD: blood pressure, fasting plasma  
glucose, cervical cancer screening, smoking rate

4 indicators on service capacity and access: hospital beds,  
health professionals, health facilities with essential  
medicines, health security (IHR)

Kwon: H Fin for UH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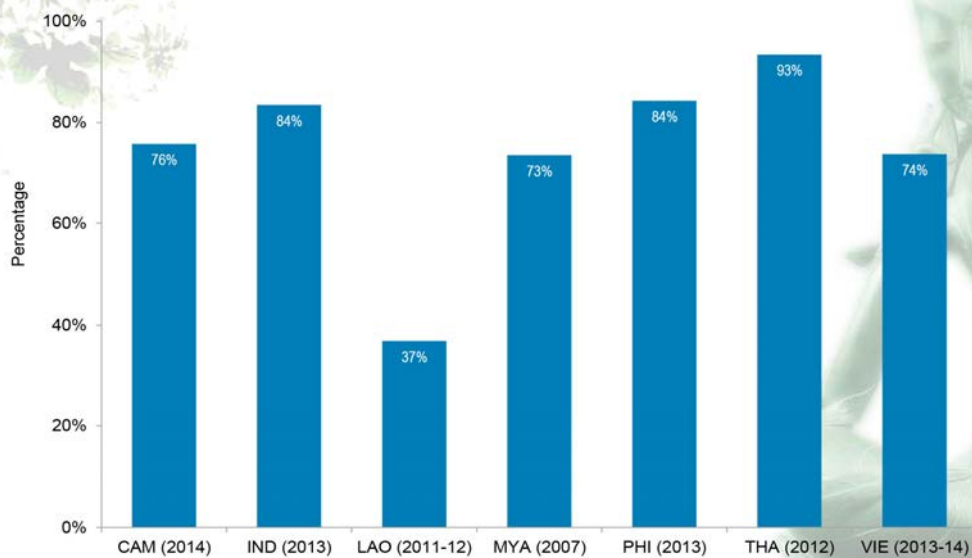
16



**FIGURE 1** (Chu, Kwon, Cowley, 2018). **UHC Indicators**  
(Source: UHC Data Por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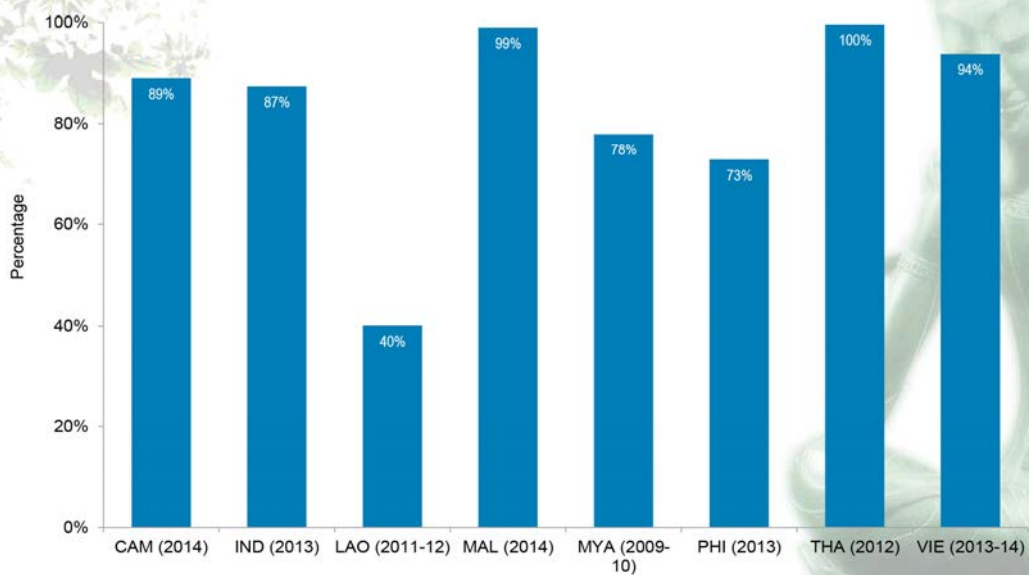
17

## Antenatal Care Visits (4+)



Reference  
Service coverage data: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www.who.int/gho/database/en/>]

## Skilled Birth Attendance



Reference  
Service coverage data: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www.who.int/gho/database/en/>]



# Thirty yea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South Korea: lessons for achieving universal health care coverage

Soonman Kwon\*

Accepted 21 June 2008

South Korea introduced mandatory social health insurance for industrial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in 1977, and extended it incrementally to the self-employed until it covered the entire population in 1989. Thirty yea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can provide valuable lessons on key issues in health care financing policy which now face many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aiming to achieve universal health care coverage, such as: tax versus social health insurance; population and benefit coverage; single scheme versus multiple schemes; purchasing and provider payment method; and the role of politics and political commitm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has been successful in mobilizing resources for health care, rapidly extending population coverage, effectively pooling public and private resources to purchase health care for the entire population, and containing health care expenditure. However, there are also challenges posed by the dominance of private providers paid by fee-for-service,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public-private mix related to private health insurance.

**Keywords** Health care financing, health insurance, universal coverage, Korea



GLOBAL HEALTH ACTION  
2018, VOL. 11, 1483638  
<https://doi.org/10.1080/16549716.2018.1483638>



Taylor & Francis  
Taylor & Francis Group

ORIGINAL ARTICLE

OPEN ACCESS

## The rol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for achieving UHC in the Philippines: a mixed methods analysis

Konrad Obermann \*, Matthew Jowett<sup>b</sup> and Soonman Kwon<sup>c</sup>

\*Mannheim Institute for Public Health (MIPH), Heidelberg University, Mannheim, Germany; <sup>b</sup>Department of Health Systems Governance & Financing,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sup>c</sup>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gu, South Korea

### ABSTRACT

**Background:** Achiev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has by now become a key health policy goal in many countries and some form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s often used for this. The Philippines has had more than 50 years' experience with social health insurance and in 1995 established PhilHealth, the country's national health insurer.

**Objectives:** Analyzing the role of the Philippine NHI scheme in moving towards UHC, identifying potential avenues for improvement as well as indicating challenges and areas for further development.

**Methods:** This paper is based on a mixed methods approach including extensive literature search, data from PhilHealth and other sources, and key informant interviews with staff at PhilHealth, health care providers, and policy experts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Results:** Major achievements were the expansion of population coverage using an earmarked revenue source ('Sin Tax'), the introduction of the no-balance-billing to prevent co-payments, and the Health Facilities Enhancement Program to improve quality. The share of PhilHealth in total health expenditures is still only 14%, managing quality and cost of providers remains insufficient, the benefit coverage does not reflect the country's burden of disease, and financial protection for PhilHealth members is low. The UHC bill would provide a massive jump forward as all Filipinos would then be automatically enrolled in and thus entitled to the benefits of PhilHealth.

**Conclusions:** For expanding a contribution-based NHI beyond formal employment there needs to be a large increase in budget transfers to cover for citizens unable to contribute. The Philippine UHC bill shifts from the idea of contribution leading to entitlement to the idea of citizenship leading to entitlement and can thus be seen as a paradigmatic change in thinking about NHI. There are three areas that we believe are of key importance in developing further NHI: (i) governance, (ii) financial impact, and (iii) strategic purchasing.

### ARTICLE HISTORY

Received 19 March 2018  
Accepted 26 May 2018

### RESPONSIBLE EDITOR

Stig Wall, Umeå University, Sweden

### KEYWORDS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Philippines; social health insurance; PhilHealth; health care financing

## Social health insurance development in Mongol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moving towards Universal Health Coverage\*

*Dorjsuren Bayarsaikhan, Soonman Kwon  
and Dashzeveg Chimeddagva*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Switzerl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Macroeconomics and Health,  
Ulaanbaatar, Mongolia

**Abstract** Mongolia achieved high population coverage under mandatory health insurance relatively quickly. This fact was viewed by policy- and decision-makers as a central issue for health financing reform in Mongolia. Health insurance brought many new features for health service planning, provision, funding and resource management. Based on initial achievements, health insurance came to be strategically considered as the vehicle for achieving universal coverage. The article analyses developments in Mongolia's health insurance over the last decade along with the core policy dimensions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It examines various reform approaches and the numerous amendments to laws that have been implemented during this period and discusses new opportunities as well as challenges. The analytical review and findings discussed suggest that Mongolia has a need for evidence-based policy decisions and informed political support, with health insurance backed

Addresses for correspondence: Dorjsuren Bayarsaikhan (correspondence author), Health Economist, Health Financing Policy, Department for Health Systems Governance and Financing, World Health Organization, avenue Appia 20, 1211 Geneva 27, Switzerland; Email: BayarsaikhanD@who.int. Soonman Kwon, Professor,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28 Yonkon-dong, Chongno-gu, Seoul 110-799, Republic of Korea; Email: kwons@snu.ac.kr. Dashzeveg Chimeddagva, Board Chairman, Macroeconomics and Heal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Baga Toiruu, 3/9, Post Office-2783, Ulaanbaatar 15160, Mongolia; Email: chimeddagva@gmail.com.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 68, 4/2016  
© 2016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 동남아 의료인 역량강화사업 경험 공유

신좌섭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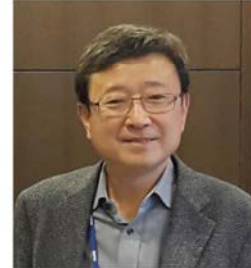
사람(People) 협력:  
한-메콩 다층적 보건의료 협력의 현황과 과제

## 동남아 의료인 역량강화사업 경험

신 좌 섭  
라파엘 인터내셔널

## 발표자 소개

- 서울의대 졸업
- 교육학 박사
- 국제공인 Facilitator
- 서울의대 교수(의학교육학)
- 서울대 의학교육연수원 국제부장
- 세계보건기구 교육개발협력센터장
- 라파엘 인터내셔널 이사



➤ 라파엘 인터내셔널과 서울의대의 경험 소개

2

## 동남아 개도국 의료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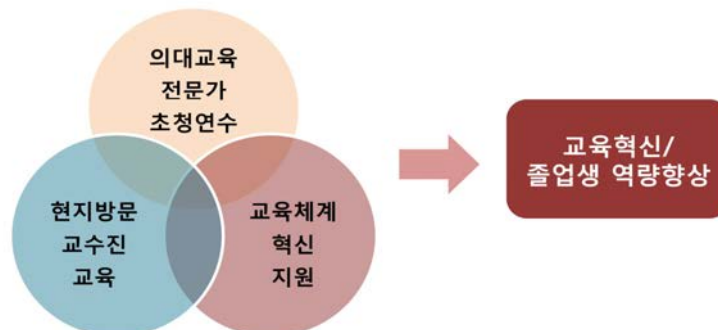
3

# 1. 대학 교육역량 강화와 혁신

4

## 대학 교육역량강화와 혁신

- 개발도상국 교수진 교육역량(↓) → 의료인 역량 (↓)
- 1975년 서울의대에 설립한 의학교육연수원 모델
- 호주 New South Wales 대학에서 교육받고 돌아온 교수진이 전국의대 교수들의 교육역량을 강화한 경험



5

## 의과대학·간호대학 교육역량 강화



2010 메콩 3국 의학교육회의(WHO)



2010 캄보디아, 라오스 교육개발센터 워크숍



2010 캄보디아 교육개발센터 워크숍



2011 라오스 교육개발센터 워크숍

6

## 의학교육 전문가 초청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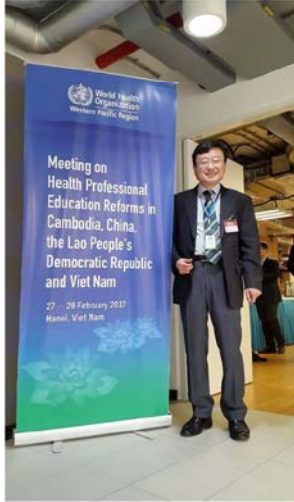


2014년 이후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35명 배출

7



## 의학교육혁신 국제공조



전환경제: 사회주의  
에서 시장경제로

- 교육개발센터 활동은 현재 진행형
- 매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몽골, 중국 등의 의학교육 혁신을 위한 온/오프라인 미팅

8

## 미얀마 대학 교육혁신 프로그램



2016년 국제표준에 따른 교육혁신 워크숍



2017년 미얀마 5개 국립의대  
국제원조기관 협력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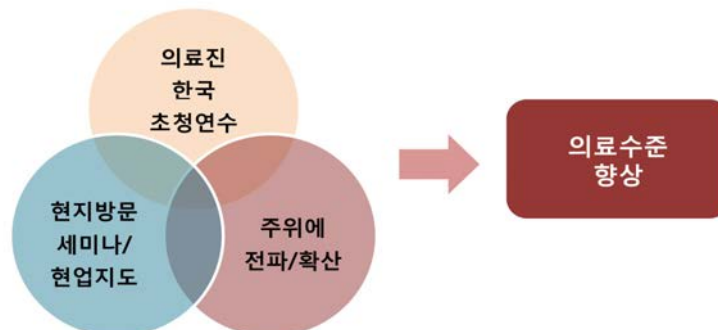
9

## 2. 기성 전문인력 재교육과 확산

10

## 전문인력 재교육과 확산

- 의료진의 기초, 임상 전문역량 부족
- 1954-61 미국 국제협력처의 서울대 협력 프로젝트 모델
- 서울의대 교수진 77명이 미네소타대학에서 연수 받고 돌아와 의료수준을 향상, 확산시킨 경험



11

## KOFIH 라오스 UHS 프로젝트



- 전 WHO 이종욱 사무총장을 기리는 이종욱 펠로우십 일환
- 2011-2019 기초, 임상의학 전문역량 강화
- 지역의료인 교육에도 투입
- 9년간 90명 배출

12

## 지역의료인 역량강화로 확산



- 한국의료진 → 중앙병원
- 중앙병원 → 주립병원
- 주립병원 → 군립병원

13



## 효과평가



- 철저한 평가: 프로젝트 팀의 자체평가, 외부 연구팀(KDI)의 평가

14

## 집중, 장기 프로그램의 결과



- 오랜 우정과 친분
- 지속적 관계에 따른 깊은 이해
- 어제의 동료가 지도자로 성장
- 기관차원의 변화: 연구지향성, 조직문화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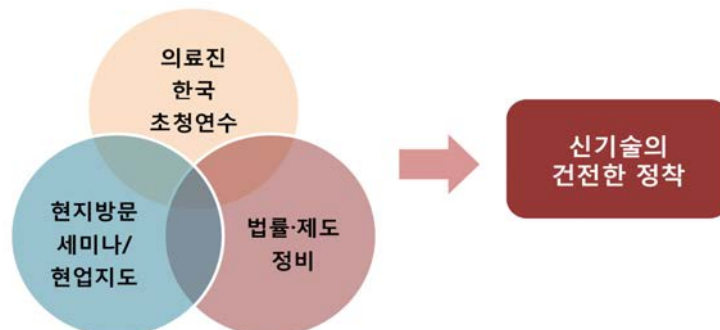


### 3. 신기술 전수와 환경개입

16

### 신기술 전수와 환경개입

-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신기술 전수: 초청연수, 현지방문교육
- 장기매매 등의 부작용 가능성 증가
- 이식법률 제정, 국가 장기관리기관 설립 등 제도정비를 통한 환경개입



17

## 미얀마 장기이식 역량향상 초청연수



- 라파엘 인터내셔널의 네트워크 활용
- 국내 최고의 역량을 가진 기관들을 중심으로 간, 콩팥이식 초청연수 시행

18

## 현지 장기이식 세미나와 기술지도



- 한국 전문가가 방문하여 초청연수 연수생과 더불어 현지인 대상 수술
- 세미나 개최로 초청연수 효과의 파급

19

## 장기이식 체계구축 국제 워크숍



- 세계이식학회, 한국이식학회 등의 협조로 관계자 초청 워크숍

20

## 장기이식 법률, 제도 정비



- 2016, 2018 정부관계자, 전문병원 리더의 참여적 워크숍으로 장기이식 법률, 국가 관리기관 설립 토대 마련

21

## 4. 개선과제

22

## 개선과제

- 대상국가별 통합전략의 모색
  - 시설/장비, 재정/정책, 인력개발
- 발전단계별 차등전략 구현
- 국내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 통합 dB, 기술-정책-교육 등 다분야 공조체계
- 국제기구, 타 국가와의 협력
- 지속가능성의 확장: 중장기 프로그램
- 성과평가의 강화

23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메콩지역 치의학교육 역량증진 사업 성과와 과제

이승표 서울대 통일치의학협력센터 교수



## ODA in Dentistry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Korea
  - Short history
  - Evaluation system (Evidence based)
  - Specialist and consultation team
  - Sharing experiences
  - Barriers in dentistry





## Need of dental volunteer

- Lack of dentists in Sapa area
  - Total only 3 dentists available
  - Most minorities have no opportunities
- School provides easy access to the children
  - About 400 students in single location



## Objectives

- Establish data record of population in this region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need for people to can set up the better future volunteer work.
  - > one-to-one home visit and interview research
  - > Basic screening and data storage
- Provide simple dental treatment and dental education to both elders and children, so people can obtain home-dental-care post the volunteer work
  - > Brushing teeth class
  - > Educating mothers who visited the clinic at the chair
  - > scaling and tooth extraction
- Give ways of prevention of tooth decay
  - > Give fluoride coating to the children to prevent childhood tooth decay



## Field research- visiting

- Among people live in houses that varies from simple roofed hut to well-structured brick house



## Tooth brush & paste

- Access to the purchase of tooth brush and tooth paste is not a big problem – it's everywhere in the market
- But people feel no need for brushing teeth



# Scaling

- Portable scaler was used to provide cleaning
- Source of electricity was unstable – couldn't do many as wished
- Most people had serious level of calculus



# Dental Education: adults

- Simple education to the adults (mothers) taught how to take care of baby teeth
- Although simple information, people appreciated very much since many people have never even met dentists before
- Language problem:  
korean -> english -> vietnamese -> hmong?





# Dental Education: children

- 'How to brush class' to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 Pre-made poster and translators helped
- Gave out free tooth brush and tooth pastes



## SNU Dental Volunteer

### Design of the Project

1. Provided free dental treatments through access to dentists and medicine at the public health center and school



3. Fluoride gel application to all 800 elementary school students



2. Plaque Control Instruction to the local village people and provided them free tooth brush and tooth paste at the open public hall



4. Visiting the Haipong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nd exchange each other's idea, method and data on dental volunteers



## SNU Dental Volunteers

### COMMUNITY SELECTION

- Based on
  - Need
  - Access to dental care
  - Community commitment

### SUSTAINABILITY ASPECTS

- In-country dentists and dental students
  - Visit communities after the volunteer
  - Follow-up is possible
- In-country staff
  - Lead local oriented projects
  - Work with in-country dentists
  - Select future communities to work with





## SNU Dental Volunteer

### SNU Volunteer Team

- Professors and Students
- Performs professional treatments under professor's supervise
- Co-work with local Dental school students, and in fact, getting help from them



## SNU Dental Volunteers

### BENEFITS in Recipient Country

- Contribute building up dental facilities
  - Provide a community access to healthcare
- Education application
  - Intake & triage of patients
  - Shadow dentists during procedures
  - Lead preventative dental care
  - International development experience

### COMMUNITY BENEFITS

- Empowerment
  - Students empower communities
  - Reinforce communities' commitments to their health
- Access to dental care







KTX 매거진

## 라오스 보건과학대학 치의학부 역량강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2014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 사업 지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승표



**라오스 보건과학대학 치의학부  
임상전단계실습 중심 역량강화 사업**

**2015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 사업 지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승표**



**라오스 보건과학대학 치의학부  
진료 역량 증진 및 지속성 강화 사업**

**2016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 사업 지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승표**





**미얀마 치과대학교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수요조사**

**2017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교육협력 사업 지원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승표**



**미얀마 치과대학교  
역량 강화와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구강 보건 향상**

**2019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승표**

	1차년도: 기반 조성	2차년도: 사업 진행	3차년도: 진행, 피드백	4차년도: 보완 및 완료
<b>UDM 대학역량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상전단계 실습 재료, 기구, 장비 지원</li> <li>임상 실습 재료, 기구, 장비 지원</li> <li>교과서 수요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습 재료, 기구, 장비 계속 지원</li> <li>파견 교수 실습 교육</li> <li>실습용 교과서 과목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료, 기구, 장비 완료</li> <li>파견 교수 실습 교육</li> <li>실습용 교과서 제작</li> <li>자체 교육 연수 워크숍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견 교수 실습 교육</li> <li>선정 과목 교과서 완료</li> <li>커리큘럼 실행 및 피드백</li> </ul>
<b>우수인재 양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진 임상 단기 연수</li> <li>서울대 교수진 워크숍</li> <li>학위 취득 대상 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진 임상 단기 연수</li> <li>서울대 교수진 워크숍</li> <li>학위 취득 대상자 입학</li> <li>졸업생, 학부생 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진 임상 단기 연수</li> <li>서울대 교수진 워크숍</li> <li>학위 취득 대상자 지원</li> <li>졸업생, 학부생 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진 임상 단기 연수</li> <li>서울대 교수진 워크숍</li> <li>학위 취득 대상자 입학</li> <li>졸업생, 학부생 연수</li> </ul>
<b>성과 기반 커리큘럼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 구성</li> <li>기존 커리큘럼 분석</li> <li>치과방사선학 담당 교수진 선정 및 업무 분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커리큘럼 제작</li> <li>시범 교실 지정, 운영</li> <li>치과방사선학 기자재 도입, 교재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커리큘럼 확산</li> <li>실제 운영 및 피드백</li> <li>교수 요원 선발 및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커리큘럼 피드백 개선</li> <li>치과방사선학 실제 운영과 개선</li> </ul>
<b>사회공헌사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구강건강증진 목표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범사업, 봉사활동 수행</li> <li>전문가 교육 및 교수진 서울대 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범사업, 봉사활동 수행</li> <li>전문가 교육 및 교수진 서울대 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범사업 수행</li> <li>전문가 교육 완료 및 현지 실행</li> </ul>
<b>지 원</b>				
<b>서울대, 한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단 구성</li> <li>신규 인력 확보</li> <li>기업 연계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단 활동 전개</li> <li>네트워크 환경 구축</li> <li>연수생, 학위생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단 활동 피드백</li> <li>교과서 감수 지원</li> <li>학위생 관리 및 피드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평가 및 개선</li> <li>자문단 구성 및 활동</li> <li>지속성 확보 추가사업</li> </ul>
<b>UDM,미얀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 사업단 공간 제공</li> <li>현지 지원 인력 구성</li> <li>보건부 행정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부 행정 지원</li> <li>시범사업 대상지 지원</li> <li>한국과 연결 체계 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자재 운용 점검 피드백</li> <li>귀국 연수생 활동 지원</li> <li>시범사업, 봉사활동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 사업 설문 평가</li> <li>지속발전 자체 워크숍</li> <li>한국과의 지속적 관계</li> </ul>


This clinical lab education was suppor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Ministry of Education, Korea.


This video is free to watch. However, if you want to distribute you should get the permission.

실습 전 양생전단계 실습 재료  
 실험동행한 체발습을 위한 학부생 연수









ສາວະນະຈາກ Seung-Pyo Lee, ທາງການໂຮງຮຽນພິມແຕ່ລາກ ແລະສາວິດສາທິລາ ສະຫະລາດຊຸນ ມ. ເວີ່ຊີ ແລະ ສາວະນະພິມແຕ່ລາກ ໂຮງຮຽນ Global Education ຊຶ່ງໄດ້ຮັບການ NRF Funded ສິນຄ້າໂຮງຮຽນພິມແຕ່ລາກ ມ.ເຈົ້າຄຳລື, ຊຶ່ງໂຮງຮຽນ ມະຫາວິທະຍາສາດສູນພາບ ສູນພັກ ໂຮງຮຽນພິມແຕ່ລາກ ໂຮງຮຽນພິມແຕ່ລາກ ທາງພິມແຕ່ລາກ ແລະ ກິນອິນເຕີເນັດ ຈຳນວນເປັນ 120,000 ໂດລາສະຫະລັດ ແຕ່ 2014 ຫາ 2017. ຊຶ່ງສາວະນະພິມແຕ່ລາກ ໂຮງຮຽນພິມແຕ່ລາກ ແລະ ກິນອິນເຕີເນັດ ໂຮງຮຽນພິມແຕ່ລາກ ສູນພາບ ພິມແຕ່ລາກ

Professor Seung -Pyo LEE from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ported 120,000USD to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Faculty of Dentistry from 2014 to 2017. As the director of 'Global Education Supporting Project' through the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Korea, he implemented the preclinical lab and clinical education development. He is grateful for the cooperation and efforts of UHS and looks forward to further development in the future.



► Satisfaction ra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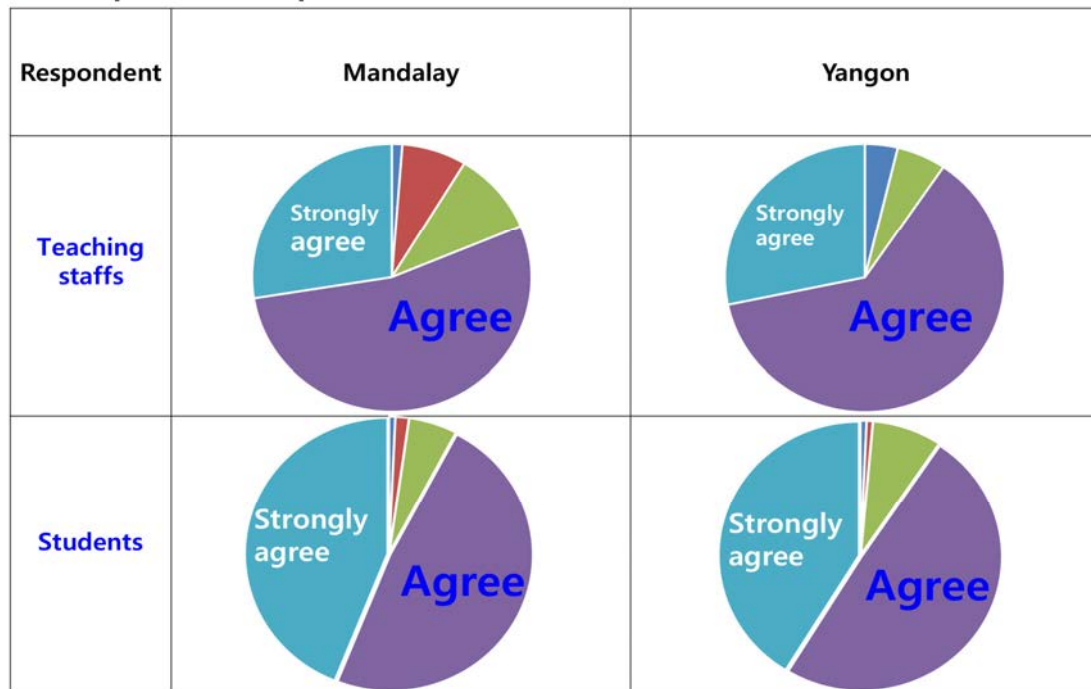
Respondent	Mandalay	Yangon
Teaching staffs	Textbook>Materials>Pre-clinic lab	Textbook>Materials>Pre-clinic lab
Students	Materials>Clinical lab>Textbook	Materials>Pre-clinic lab>Textbook

Survey result

► Order of n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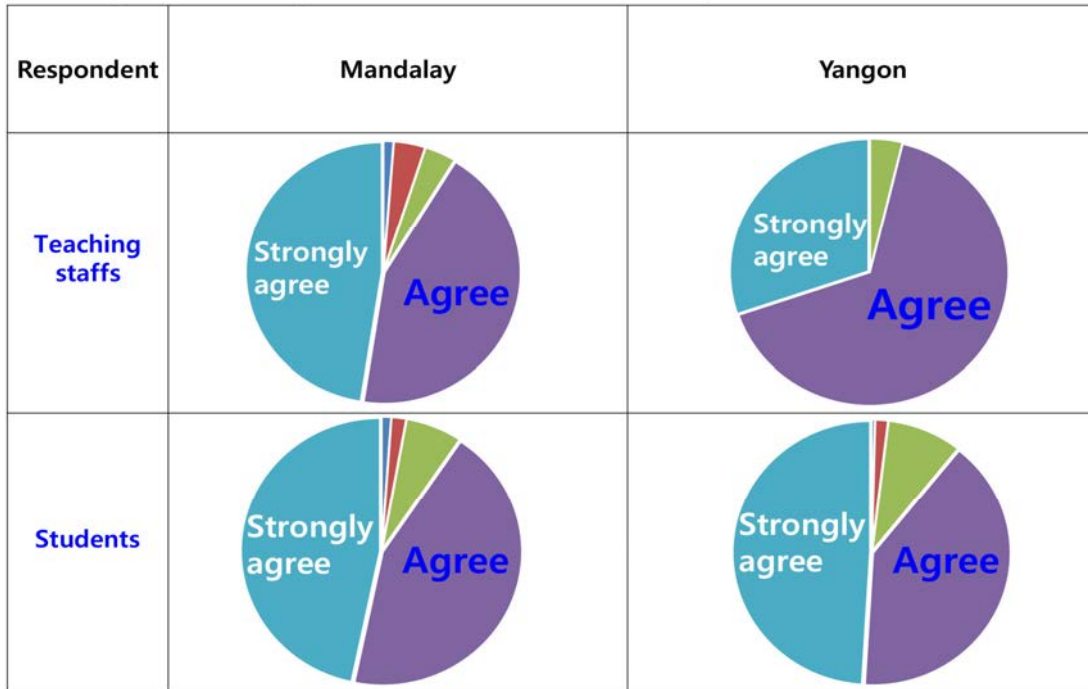
Respondent		Pre-clinic lab	Clinical education
Mandalay	Teaching staffs	<b>1. Radiology (11.7%)</b> 2. Pharmacology (8.2%) 3. Dental materials (7.8%)	<b>1. Radiology (30.7%)</b> 2. Orthodontics (16.5%) 3. Oral surgery (10.2%)
	Students	<b>1. Radiology (11.3%)</b> 2. Anatomy, Pharmacology (10.2%) 3. Dental anatomy (8.2%)	<b>1. Radiology (28.9%)</b> 2. Orthodontics (20.3%) 3. Endodontics (12.5%)
Yangon	Teaching staffs	<b>1. Radiology (12.2%)</b> 2. Pharmacology (8.1%) 3. Dental materials, Endodontics (7.3%)	<b>1. Radiology (24.3%)</b> 2. Endodontics (20.3%) 3. Orthodontics (16.2%)
	Students	<b>1. Radiology (12.9%)</b> 2. Pharmacology (10.8%) 3. Microbiology (9.1%)	<b>1. Radiology (26.7%)</b> 2. Orthodontics (19.3%) 3. Endodontics (14.0%)

► Comprehensive question – Invitation lecture from abroad





▶ Comprehensive question – Overseas training



## 6년 간의 경험과 제언

- 왜 사업을 하고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 실천.
-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계획.
- 가능한 많은 이들과 함께, 몰라서 못하지 않도록.
- 젊은이들의 열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
- 기존 사업을 토대로 새로운 사업 형태를 재창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연수생 합동 미팅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션  
2

# 평화(Peace) 협력: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협력의 현황과 미래

좌장 박수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소장

메콩지역 대학교류 연계경험과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제언  
김영선 前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새로운 평화세대를 위한 한-메콩 고등교육의 협력과 과제  
홍문숙 경희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한반도와 메콩지역의 평화협력의 의의와 과제  
엄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 메콩지역 대학교류 연계경험과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제언

김영선 前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 메콩지역 대학교류 연계경험과 파트너십 심화를 위한 제언

2019.02. 28(목)  
국회 의원회관

김영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  
(前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 차례

1. 들어가며 : 한-메콩 교육협력의 기본원리
2. 한-아세안 교육협력의 6가지 사례
3. 결어 및 제언

## 1. 들어가며 : 한-메콩 교육협력의 기본 방향

- 신남방정책이란?
  - ✓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중심의 상생번영·평화 공동체
- 체계적,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 비전-추진 목표-전략-구체 사업 간의 연결성
  - ✓ 수요자 중심(Need-based, Tailor-made)
  - ✓ 단기-중기-장기 전략 간 차별화
  - ✓ 현실성, 지속가능성
  - ✓ Ownership, 공동협력사업
  - ✓ 인적 연대(협력 network)
  - ✓ 쌍방향의 교류·협력



## 2. 협력사업 사례 1 : ASEAN Cyber University

### ● 추진 배경 및 경과

-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09년 6월) 기간 중 아세안 사무총장이 제안
- ✓ 1단계(2012~15) : 역량 강화
- ✓ 2단계(2016~19) : 시스템 고도화 및 학점교류 체제
- ✓ 3단계(2020~ ) : ACU 설립?

- ※ 한-메콩 실행계획(2017-2020)
- ※ 아세안+3 교육분야 실행계획(2018-2015)

4

### ● 회원대학 (Member University)

국가	대학(기관)
캄보디아	캄보디아공과대학교 (ITC: Institute of Technology of Cambodia)
	국립우정통신대학교(NIPTICT: National Institute of Posts Telecommunications and ICT)
라오스	라오스국립대학교 (NUOL: National University of Laos)
미얀마	기술대학교 (UT: University of Technology), 컴퓨터대학교 (UIT: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베트남	하노이공과대학교 (HUST: Hano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태국	쓰리파툼대학교 (SPU: Sripatum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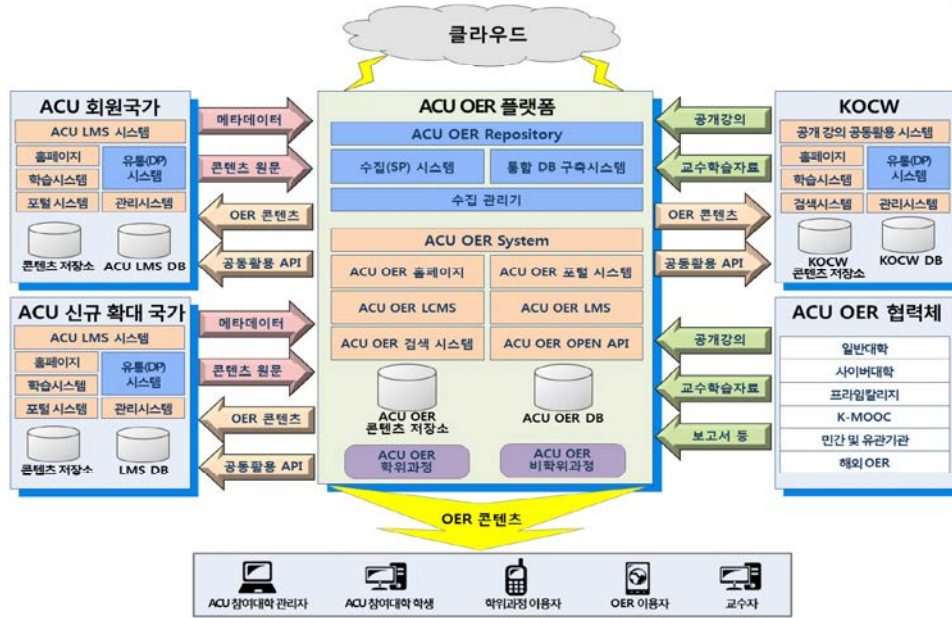
### ● 협력대학 (Cooperative University)

협력대학(콘소시엄)	지원국가(대학)
송실사이버대학교(건양사이버대학교)	캄보디아(ITC, NIPTICT)
원광디지털대학교	라오스(NUOL)
부산디지털대학교(동서대학교)	미얀마(UT, UIT)
영진사이버대학(영진전문대학)	베트남(HUST)

### ● 참여대학 (Participating University)

국가	대학(기관)	비고
말레이시아	와와산 개방대학교 (WOU: Wawasan Open University)	거점대학
필리핀	필리핀 개방대학교(LPOU: University of Philippines Open University)	거점대학
	필리핀 폴리텍대학교(PUP: Polytechnic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태국	람팡대학교(LPRU: Lampang Rajabhat University)	
인도네시아	터부카대학교(UT: Universitas Terbuka)	거점대학
브루나이	다루살람대학교(UBD: University Brunei Darussalam)	거점대학

# ACU 목표 시스템 구성도



6

# 문제점 및 추진방향

- ✓ 중, 장기 목표가 있는가? (아세안 10개국, K-Education?)
- ✓ 역량개발, 콘텐츠 개발(한국학, 직업훈련?)
- ✓ 한-아세안 협력 네트워크

7

## 2. 협력사업 사례2 : 서강대-캄보디아대학(Royal University of Phnom Penh) 기초과학 교육프로그램 지원

- 추진 배경 및 경과
  - ✓ 1991년 이후 서강대학의 자체협력사업(장학생 초청, 학생봉사단, 구호활동)
  - ✓ 2010년 이후 한국연구재단의 개도국 지원사업
- 긍정적 요인
  - ✓ 오랜 신뢰관계, 캄보디아 측 수요기술 지원
  - ✓ 공동협력방식
  - ✓ 지속가능성 확보(자체 교원 육성 및 재교육 등을 통한 역량강화)
- 향후 추진방향
  -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entre(Institute)으로 확대 발전 (과학기술 협력 총괄 기능)

8

## 2. 협력사업 사례 3 : 대전대-아세안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 추진 배경 및 경과
  - ✓ 2002년~ ASEAN University Network과 공동협력 사업 (아세안 협력기금 사업)
  - ✓ 2018년까지 14차례 270명의 학생을 초청, 1년간 학사과정 및 인턴십 제공
- 향후 추진방향
  - ✓ 연간 10개국 20명 규모를 보다 확대
  - ✓ 교육 내용의 다원화 (사회과학, 한국학, ICT, 문화 등)
  - ✓ 협력 대학 및 기관 확대
  - ✓ 동문회(Alumni Assembly) 활성화

9

## 동문회 사진



10

## 2. 협력사업 사례 4 : 캄보디아 바탐방대학

- 바탐방 대학 한국어과
  - ✓ KOICA 지원 교사 4명, 현지인 강사 1명

※ 한국학 개설대학 현황  
- 캄보디아(10), 라오스(4), 미얀마(2), 베트남(29)

11

## 2. 협력사업 사례 5 : AYNK(ASEAN Youth Network in Korea)



Together We Make a Difference



12

## 2. 협력사업 사례 6 : Southeast Asian Studies, ASEAN Studies

- 국내 메콩유역국 언어학과 설치대학
  - ✓ 태국어과 : 한국외대, 부산외대
  - ✓ 미얀마어과: 부산외대
  - ✓ 베트남어과: 한국외대, 부산외대, 청운대(홍성)
  - ✓ 캄보디아어과: 부산외대
  - ✓ 라오스어과: 부산외대

13



### 3. 결어 및 제언

구체적인 비전, 목표 및 중장기 전략 하에,

상향향등의 지속가능한 협력이 되어야

# 새로운 평화세대를 위한 한-메콩 고등교육의 협력과 과제

홍문숙 경희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목차

- ▶ 1장. 들어가며
- ▶ 2장. 한-메콩 교육협력 및 고등교육협력 동향
- ▶ 3장. 미얀마 정치사회변화, 고등교육 개혁, '신 메콩 세대'의 등장
- ▶ 4장. '신 메콩 세대' 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한국의 전략
- ▶ 5장. 맺으며





## 메콩지역의 성장 그리고 빈곤

도시화와 빈곤



도시화와 성장



## 한-메콩지역 고등교육협력 동향 및 특징





## ‘신메콩세대’의 등장



## ‘신메콩세대’의 등장



## 개혁개방 이전의 미얀마 현대사



## 미얀마 정치역동과 교육의 짧은 역사

	Phas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Educational Changes
1	The independent civilian government (1948-1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8 The birth of the Union of Burma</li> <li>1950s Nationalist/welfare driven U Nu government</li> </ul>	Burmese nationalist education
2	Socialist military dictatorship (1962-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62 General New Win's coup d'état and the beginning of military rule</li> <li>1962 A Burmese Way to Socialism</li> </ul>	Nationalization of education Decline of Higher Education
3	Burmese unity military dictatorship (1988-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8 The launch and suppression of the 8888 uprising for democratization</li> <li>1990 Victory of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in the general election held in 30 years</li> <li>1990 The invalidation of the general election by the military government and a parallel of oppressive and reformative policies</li> <li>2007 The Saffron Revolution: Monk-led anti-government protests</li> <li>2008 The New Constitution: Limited civil participation in politics allowed</li> </ul>	Dark-age of education Collapse of higher education
4	Gradual opening up and Reform (2010-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0 Victory of the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Association Party in the general election</li> <li>2011 President Thein Sein's reform and opening-up policy</li> </ul>	Selective and limited education reform
5	New civilian government (2016-the pres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 Victory of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in the general election</li> <li>2016 The launch of the new civilian government, with the President Htin Kyaw and, the Chancellor of State Aung San Suu Kyi</li> </ul>	New education policy 2016-2020 Higher education re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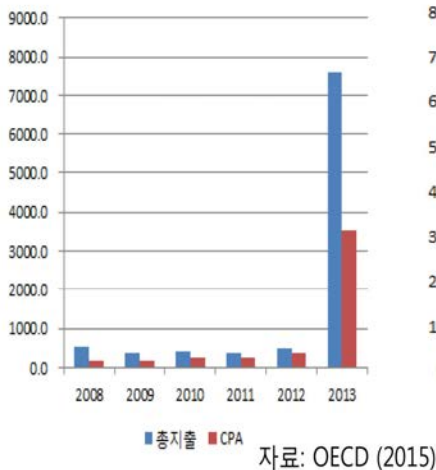
Hong (2018; 2019)

## 전환기 미얀마의 주요 개혁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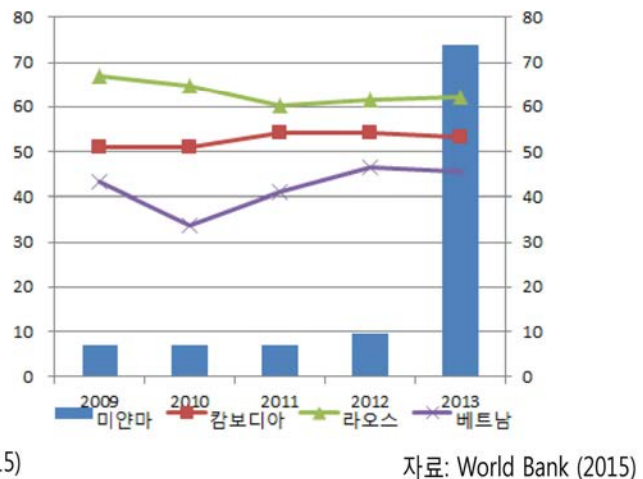
일시	주요 개혁 동향
2003. 7.	민주화를 위한 로드맵 발표
2008. 5.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채택
2010.11	총선거 실시
2010.11	아웅산수치 가택연금 해제
2011.03	떼인세인 대통령 취임 및 신정부 출범
2011. 10.	정치범 200여 명 대거 석방
2011. 12.	정당등록법령 개정 발표 (NLD 정치참여 허용)
2011. 12.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 미얀마 방문
2012.01.	까렌민족연합과 정전협정 서명
20102.01	민주화운동 지도자를 포함하여 300여 명 정치범 추가 석방
2012.04	보궐선거 실시 및 아웅산 수치 당선

## 미얀마 원조 유입 추이

▶ 미얀마 원조유입 추이



▶ 미얀마와 주변국 1인당 원조수원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미얀마의 '신세대'의 등장

## 메콩지역 신세대의 특성



## 미얀마 '민주화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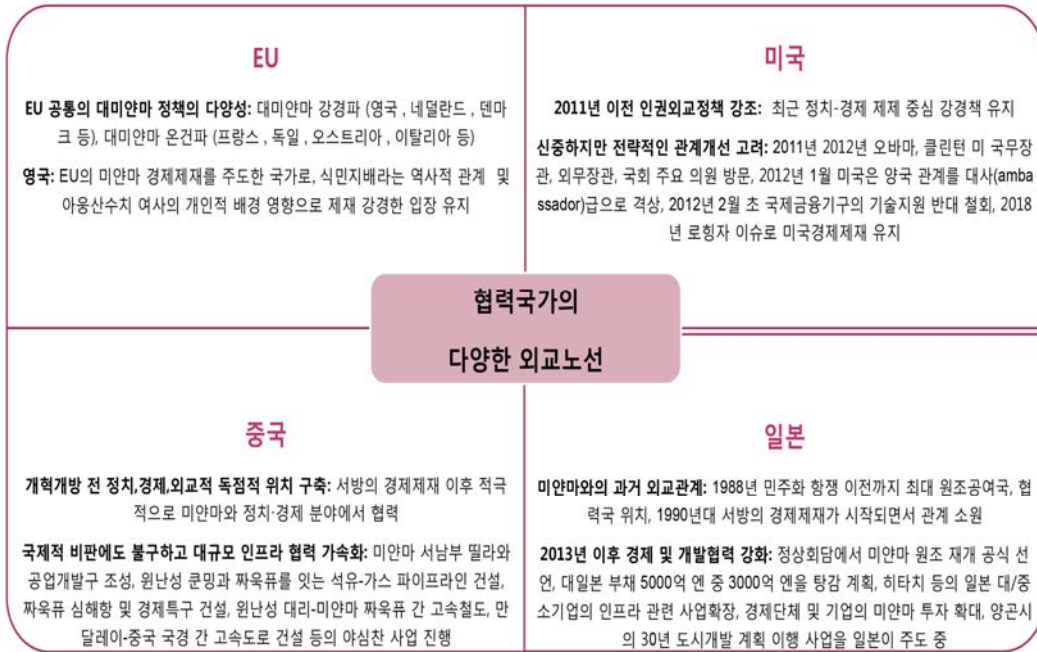
- ▶ 개혁개방 1세대의 등장: 전환기 '민주화 첫 세대'의 등장?
- ▶ 소수의 엘리트층 및 중고소득층
  - 경제적 특징: 도시화 및 잦은 초국가, 국가내 이주 정도가 높은 세대
  - 교육적 특징: 전통적인 군부 및 정부 엘리트들의 초국가적 엘리트 교육 공고화, 장학금 및 국제교육 기회 독 (국가 장학금 및 원조를 통한 연수, 훈련 기회), 초국가적 두뇌유출
- ▶ 다수의 중저소득층의 빈곤층
  - 경제적 특징: 사회기반서비스 거버넌스 한계 속 '창의적' 초국가적, 초기역적 생계 모색
  - 교육적 특징: 중저소득층 및 빈곤층의 낮은 교육수준, 높은 공교육(초등 및 중등) 중도탈락률, 낮은 고등학교 이수율, 낮지않은 문해율, 높은 교육 민간 의존도 (종교 기관 및 엔지오), 초국가적 노동력 제공

## 4장 '신메콩 세대'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한국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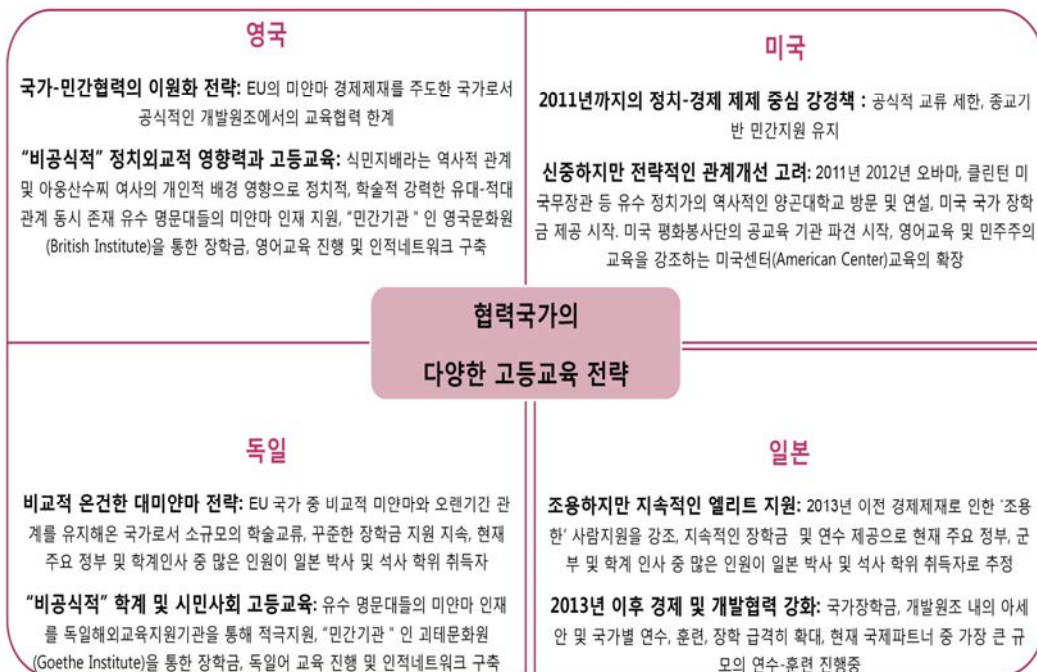




## 주요 협력국가의 대 미얀마 전략



## 주요 협력국가의 대 미얀마 고등교육 지원 특징





## 공공-민간 고등교육협력의 “전략화”

다양한 공공, 민간  
교육협력의 “전략화”

- 메콩 지역발전 핵심인재를 위한 ‘신남방’ 고등교육 협력
- 지속가능한 메콩지역 발전을 위한 포용적 “고등교육협력”

공적개발원조 교육협력의  
“전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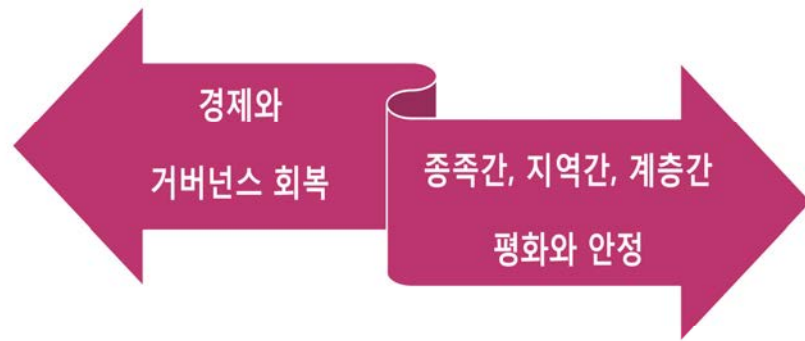
- 공교육 및 사회적 자산으로서 고등교육
- 국가발전의 전망을 고려한 직업기술교육

메콩지역 고등교육 맥락의 이  
해 심화

- 국가정치사회적 맥락과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과 위치의 이해
- 메콩지역 인재의 다원적·모순적 사회적 역할의 이해



메콩지역의 새로운 인재는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해야하는가?



감사합니다  
제주덴바데





# 한반도와 메콩지역의 평화협력의 의의와 과제

엄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일시: 2019. 02. 28(목)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 한반도와 메콩지역, 평화협력의 의의와 과제

엄은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선임연구원)

## 발표 내용

1. 메콩과 한반도 : 역사적 유사성과 미래의 방향
2. 메콩 지역의 이해
3. 한-메콩 정상회의의 브랜드화 : 3P 중 '평화'의 가능성
4. 한-메콩 평화 공영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역할

### 1-1. 메콩 지역 그리고 한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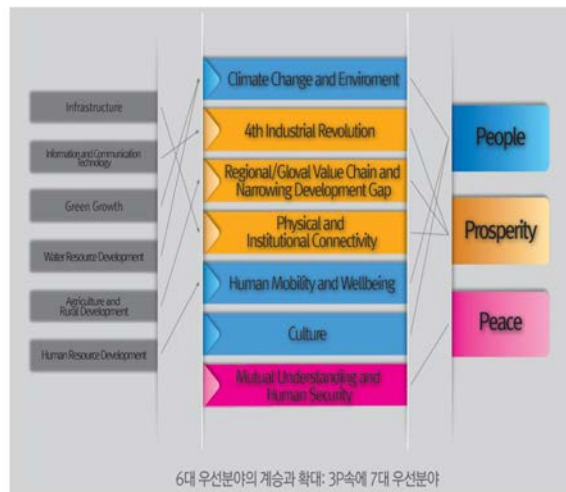
- 메콩은 어디에 있나?
  - : 지역명은 메콩강에서 유래
  - : 메콩강유역(basin)을 넘어 대륙부 동남아국가(태국+CLMV)들을 통칭함
  - : 면적은 한반도(220,847km<sup>2</sup>)의 8.8배 (총면적 1,938,740km<sup>2</sup>=태국 513,120km<sup>2</sup>+ 캄보디아181,035km<sup>2</sup>+라오스236,800km<sup>2</sup>+미얀마 676,575km<sup>2</sup>+베트남 331,210km<sup>2</sup>)
  - : 인구는 한반도(7,500만명)의 3.2배(총인구24,081.8만명=태국6,904만+캄보디아1,601만+라오스685.8만+미얀마5,337만+베트남 9,554만명)
- 인도차이나 반도가 아니라 대륙부 동남아 or 메콩 지역으로 불러야.
-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연구가 상당 기간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메콩지역의 연구는 북한의 향후 개발 및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역협력에 대한 유의미한 참조사례가 될 수 있음.





## 1-2. 한-메콩 관계의 형성과 발전

- 메콩지역 형성기(1990~)
  - 메콩지역의 체제전환국들은 1990년대 개혁개방과 더불어 ASEAN, WTO 등에 가입하며 국제무대에 등장함.
- 아세안 중심의 다자협력 형성기(1994~)
  - 1994년 동아시아 유일의 다자안보협력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출범 : 전통적인 안보 이슈는 탈냉전 국제정세에 따라 완화되었으나 자연 재해, 환경, 보건으로, 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협력체가 결성됨.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동북아와 동남아를 아우르는 지역협력 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함.
- 한-메콩 외교장관회의(2010~)
  - 아세안 내의 개발격차 해소(ASEAN 6 vs. CLMV)를 위해 지역 외부의 협력이 요구됨.
  - 2010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시 한국의 제안으로 신설.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와 병행)
  - 회원국은 한국과 메콩 5개국(단, 태국은 개발파트너의 지위),
  - 2011년 1차 회의(한국, '한강 선언' 채택) 이후 6개 우선협력분야(인프라, 정보통신기술, 인적자원개발, 녹색성장, 수자원개발, 농업 및 농촌개발)을 중심으로 다수의 협력 사업을 실행함.
  - 한-메콩협력기금 출범(2013), 한-메콩 행동계획(2014-2017), 제 2차 한-메콩 행동계획(2017-2020)
- 한-메콩 정상회의(2019~)
  - 정상회의 격상의 의의를 설명하고, 기존의 한-아세안 관계 혹은 한-베 관계와 차별적인 정상협력의 비전, 의제, 전략,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임.



최경희 외(2018)  
젊은 연구자들의 정상회의 격상에 따른 제언

## 1-3. 한반도와 메콩: 역사적 유사성과 미래협력의 방향

### • 역사적 유사성

- ▶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적 단위로 사고할 때, 동아시아 냉전의 최전선이었음
- ▶ 태국-CLMV(과거형, 90년대 이후 전환 이행 중) / 남한-북한(현재진행형, 하지만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해 역동적 전환 중)

### • 미래 협력의 방향은?

- ▶ 체제 경쟁의 장에서 공동의 번영을 꿈꿀 수 있는 지역으로의 전환 중
- ▶ 우리 사회도 사실상의 섬인 '닫힌 체계' 에서 반도의 특성이 극대화된 '열린 체계' 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 북한에 베트남 모델이 제시한다면, 지역적 차원에서 봤을 때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
- ▶ 양자관계를 넘어, 다자관계 안에서 지역적 차원 안에서 대한민국의 진로에 대해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2-1. 메콩지역의 이해(1) : 냉전시대의 전선



- 메콩강: 길이 4,180km의 국제하천(중국티벳고원 발원하여 베트남 메콩델타에서 남중국해에 합류)
- 영국 vs. 프랑스 식민쟁탈 시기 동안
  - : 태국 중립지대화
  - : 영국의 육로탐험(미얀마-운남성)
  - : 프랑스의 수로탐험(메콩강 탐험, 앙코르왓 발굴 등)
- 2차 세계대전 직후 : 竹의 장막에 대응하는 메콩유역 개발계획 수립(실현은 지연)
- 메콩강 본류는 사회주의 블록 형성 후 체제 경쟁의 전선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자연 상태로 장기간 남겨짐.
- 상대적으로, 자본주의 진영의 모델국가로서의 태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이 이루어짐.

## 2-2. 메콩지역의 이해(2): 체제전환과 개발의 최전선



ADB 주도의 GMS 프로젝트 | 중국의 일대일로와 고속철

- 탈 이념의 시대 도래: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메콩 유역국들의 경제 개혁개방 선언
- 이후 국제금융기관과 공여국들이 앞 다투어 메콩지역과의 협력을 추진중
  - ✓ ADB가 주도하는 GMS 프로그램
  - ✓ 유럽 주도의 ASEM 정상회의
  - ✓ 미국이 지원하는 Lower Mekong Initiative(LMI)
  - ✓ 일-메콩 정상회의(2008~)
  - ✓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란창-메콩 정상회의(2016~)
  - ✓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2019년 12월 예정)

## 3-1. 한-메콩 정상회의와 ‘평화’ 의제의 가능성

- 한-아세안 관계, 한-베 관계와의 차별의 지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 ✓ 다자관계로서 한-아세안 관계는 중상주의적 접근을 넘어서기 위해 ‘사람’을 강조 중.
  - ✓ 양자관계 중 한-베 관계 역시 경제산업협력(번영)이 중심이며, 인적교류가 심화됨에 따라 ‘사람’ 영역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 ‘평화’를 주제로 한반도-메콩 간 협력 비전과 실행 사업을 모색할 때, 차별성과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음.
  - ✓ 포괄적 평화 개념 : 현 단계 무력 갈등이나 전쟁 방지를 넘어서 평화의 문화화, 다양성과 다문화의 인정, 종교적 관용도 증진, 개별 국가 및 국가 및 지역 간 불평등과 불균등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확대가 요구됨.
  - ✓ 메콩국가들 사이에서의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요소와 접경시대 이해충돌의 과제가 존재함. 또한 개별 메콩국가들 내의 정치상황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으로의 전환 수준은 낮은 편
  -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메콩국가들(아세안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이 요구됨.

## 3-2. 메콩 지역의 잠재적 지역갈등 요소(중국 vs. 메콩국가)



- 중국의 상류지역 개발(집약적 수력 및 내륙 수운 개발 중)
- 란창-메콩의 구분 : 상류 메콩(국제하천) 대신 란창(국가하천) 사용.
- 중국의 입장에서 메콩유역은 해양으로의 진출, 농업투자 및 식량자원 수입 지역으로서 의의를 지니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핵심 협력지역임.
- 메콩의 입장에서 중국은 가장 큰 투자 및 무역 상대국이자 인적교류도 활발함. 하지만 개별국가가 대응하기엔 두렵고 버거운 상대국
- 중-메콩 관계(LMC) : 2015년 외교부 장관급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정상회의로 격상
- 2018년 1월 프놈펜에서 열린 2차 LMC 정상회의에서 “우리 공동의 평화로운 강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최상위 의제로 제안됨.

## 3-3. 메콩유역의 잠재적 국가간 갈등요소

- 갈등의 기본 내용
  - ✓ 식민지 유산, 탈식민시대, 냉전기간 동안 대륙부 동남아의 신생독립국은 중앙정부의 정치적 지배범위한 국제법에 의거 규정된 영토관할권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함.
  - ✓ 전통적인 국경개념과 근대주권국가의 국제법상 영토개념 간의 불일치
  - ✓ 통일적인 국가정체성을 거부하는 일국 내 소수민족들의 존재
  - ✓ 자연자원 개발, 불법 마약거래, 카지노 운영 등 접경지 경제활동을 둘러싼 갈등.
- 태국-베트남 간 신 경쟁구도
  - ✓ 베트남은 캄보디아, 라오스와 함께 사회주의 동맹을 결성하였으나, 탈냉전과 아세안 가입으로 인도차이나 3국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상황.
  - ✓ 태국은 탈냉전시기 동안 CLM 국가를 향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시킴.(라오스의 수자원개발, 미얀마의 화력개발, 난민의 경제적 활용, MIB를 통한 정치 행정상의 친화력 강화 등)
- 미해결된 접경지역 갈등
  - ✓ 미얀마-태국 : 전근대 무력충돌, 체제 간 경쟁, 미얀마 난민의 태국행
  - ✓ 태국-라오스: 언어 및 종교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역사 서술과 자원개발을 둘러싼 협력과 긴장
  - ✓ 태국-캄보디아: 프레아 비헤아 사원과 주변 영토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
  - ✓ 캄보디아-라오스: 공유국경의 87%에 대한 조사 후 경계표지 설치(하지만 13%의 이견)
  - ✓ 캄보디아-베트남: 베트남 남부는 17C 말까지 크메르 왕국의 영토, 이후 베트남의 영토확장
- 기타,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의 후속조치 : 봉합을 넘어 대화를 시작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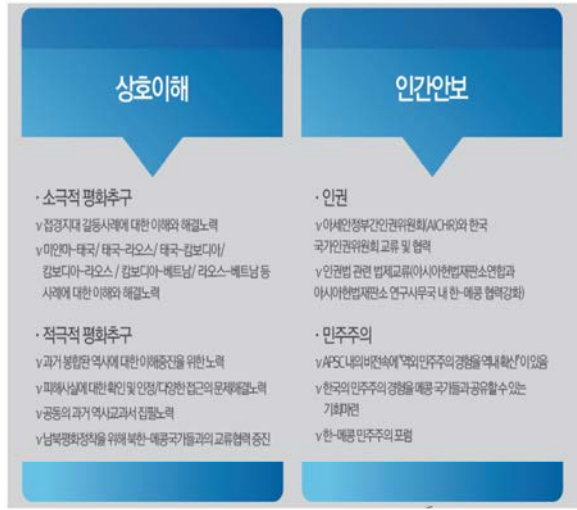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체계도

비전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3대 목표	①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2025년까지 한-ASEAN 상호인구적 연인 1,500만 명 달성) ②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4차 산업, 2025년 상호교역액 연인 2,000억불) 연도: 2025년 상호교역액 연인 2,000억불 ③ 평화롭고 안전한 적대 안보환경 구축	
16개 추진 과제	사람 (People)	1) 상호 방문객 확대 2) 방방방 문화교류 확대 3) 인력 자원 역량 강화 지원 4) 공공행정 역량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5) 상호 체류 국면의 권리 보호 증진 6) 삶의 질 개선 지원
	성영번영 (Prosperity)	7)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8)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9)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10)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 역량 제고 11) 국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평화 (Peace)	12)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13)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14) 국제 평화 협력 확대 15) 핵내 타구, 사이버, 해양 안보 공동대응 16) 국제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
추진 체계	· 신남방정책추진조직(합동) · 신남방) 자위 헌장 주아세안대사부 등 재외관공관·기능·정책·정치·인문·기술·정부·유관 기관 등 · 국내 기관 (장·관계·국회·한-아세안포럼·시도지사협의회 등) (경제계·대선·의·무연·학·아세안·인도·중국·기타·연·그룹 등) (학계·국립·고·교·대·사·공·동·남·사·학·회·사·동·인·간·전·문·가·그·룹·사·원·전·체 등)	

출처: 신남방정책추진위원회,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2017년 11월 28일)

한-메콩 평화협력의 2대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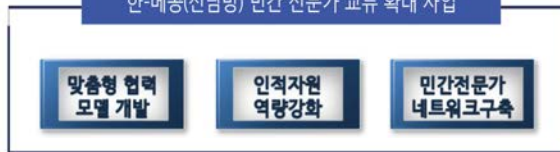


- 소극적 평화에서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상호이해-인간안보의 두 축을 기초로 한 포괄적 평화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4. '평화' 의제화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역할

- 메콩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 분야 협력을 통한 인적자원의 질 향상의 과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상호이해와 의제 설정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역할도 중요함.

한-메콩(신남방) 민간 전문가 교류 확대 사업



국가별, 분야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인적자원 역량강화	민간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p><b>학계, 언론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국가별, 영역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콩지역(및 신남방정책) 민간 전문가 연 20명 초청 (6개월 * 10명 * 2회)</li> <li>•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국내 전문가와의 연결</li> <li>• 국가별, 분야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과 사업 제안서 제출</li> </ul>	<p><b>분야별 민간 전문가 교류 확대로 국내 외 인적 자원 역량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남방 지역 핵심 민간 전문가의 인적 자원 풀 형성</li> <li>• 국내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국내 전문가의 지역 관련 역량 강화</li> <li>• 해외 전문가의 주제별 특별 강연, 공개 세미나, 지역 특강 시리즈</li> <li>• 신남방 지역 이해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li> </ul>	<p><b>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생의 협력 기반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별, 분야별 민간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형성</li> <li>• 민간 전문가들의 각 국 정부에의 Bottom-Up 소통 채널</li> <li>• 평화와 상생 번영의 공동체를 향한 민간의 협력 기반 마련</li> </ul>





Q & A

[likemoon@snu.ac.kr](mailto:likemoon@snu.ac.kr)

세션  
3

# 번영(Prosperity) 협력: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한-메콩 경제협력의 현황과 미래

좌장 김두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사

신남방정책과 한-메콩 경제산업 협력의 현황과 미래

박번순 고려대 경제통계학부 교수

한-메콩 경제협력 기업 사례

박창영 롯데면세점 본부장

한-메콩 경제협력 기업 사례

강태영 포스코 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신남방정책과 한-메콩 경제산업 협력의 현황과 미래

박번순 고려대 경제통계학부 교수

한-메콩 정상화의 격상 및 평화번영 구축 세미나

## 신남방정책과 한-메콩 경제·산업협력의 현황과 미래

2019.02. 28(목)  
국회 의원회관

박번순(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 차례

- Ⅰ. 신방방정책의 의의
- Ⅱ. 아세안에서 우리의 위상은?
- Ⅲ. 메콩지역과의 경제·산업협력

- Ⅰ. 신남방정책의 의의





## 신남방정책의 의의

- 신남방정책은 신남방지역(아세안과 인도)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한다는 정책
  - ✓ 신남방정책은 개발도상 지역인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와 협력수준을 미국,일본, 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강 수준으로 제고**
  - ✓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을 대상으로 한 신북방정책과 연결하여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완성에 기여
-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 중심의 평화(Peace)와 번영(Prosperity)의 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
  - ✓ 특히 아세안에 대해서는 강대국과 차별화된 ‘**사람 중심의 국민외교**’, 국민이 안전한 평화 공동체, 그리고 ‘**더불어 잘사는 상생 협력**’을 할 계획

4

## 신남방정책의 의의

- 신남방정책은 정치·경제 협력 파트너의 다변화
  - ✓ 미·중 중심의 정치·경제협력에서 외교의 다변화를 추진
  - ✓ 신냉전체제 속에서 독립성 확보 추구
- 신남방정책은 개도권 지역통합체와의 협력
  - ✓ 지정학적 야망과 관계없는 중견국 통합체와의 협력
  - ✓ 대외지향적 개발도상국 경제통합체로서 호혜적 협력 가능
  - ✓ 성장잠재력이 큰 신흥지역과의 협력강화로 미중의 보완시장 개발
- 신남방정책은 열린 협력체로서 국제사회에 기여
  - ✓ 정부중심의 경제협력에서 사람과 사람의 협력, 상호이해의 협력 확대
  - ✓ 지역적으로 열린 협력을 통해 아시아 및 국제사회와 소통

5

## 왜 신남방정책인가?(1) : 미·중간의 패권경쟁 격화

- 20세기는 팩스 아메리카나 대 21세기 팩스 차이나
  - ✓ 달러, 영어, 민주적 제도, 워싱턴 컨센서스
  - ✓ 일대일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 패권 전환기간의 불안정(투기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
  - ✓ 구매력평가 GDP는 2016년 중국이 세계의 17.7%, 미국이 15.4%
  - ✓ 영국과 미국의 GDP는 1873년 역전되었고, 공업생산은 1880년 동일한 수준이 었으나 미국은 세계대공황 이후 세계의 리더로 등장
- **정치적으로 미국,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 ✓ 우리는 지속적으로 양측의 압력에 직면

6

## 왜 신남방정책인가?(2) : 경제적 잠재력

- 아세안과 인도는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
  - ✓ 인구, 명목 및 구매력평가 GDP 등에서 세계 5위 권 내
  - ✓ 아세안의 무역규모 역시 세계 3위 권
- 개발도상 지역으로서, 아세안은 당분간 성장을 지속할 전망
  - ✓ 아세안경제공동체(AEC)도 아세안 성장에 긍정적 역할

### <ASEAN과 인도의 경제적 위상(2017)>

인구(백만명)		GDP(십억달러)			수출(십억)		수입(십억달러)	
국가	인구수	국가	명목	PPP	국가	규모	국가	규모
중국	1,386	미국	19,391	19,391	중국	2,271	미국	2,409
인도	1,339(2)	중국	12,238	23,301	미국	1,547	중국	1,841
ASEAN	647(3)	일본	4,872	5,487	독일	1,450	ASEAN	1,285(3)
미국	326	독일	3,677	4,188	ASEAN	1,345(4)	독일	1,174
인도네시아	264	ASEAN	2,767(5)	7,931(4)	일본	698	일본	672
브라질	209	영국	2,622	2,857	네덜란드	652	영국	640
		인도	2,598(7)	9,449(3)				
한국	51	한국	1,411	1,872	한국	574	한국	478

## 그런데, 아세안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 신남방정책은 사람, 상생, 평화의 미래공동체라고 하지만 ?
- **우리 대부분은 아세안을 새로 하늘에서 떨어진 시장으로 본다**
  - ✓ 청와대 前경제보좌관은 “젊은이여 아세안으로 가라”
  - ✓ 언론, 국민 모두 신남방정책은 오늘 새로운 시장이 출현한 것으로 인식
- **아세안은 옛날부터 존재했다**
  - ✓ 태국 타자기를 만든 한국기업인(1989년)
  - ✓ 포스코의 포스비나(1992년)
  - ✓ 앙코르와트의 “창숙이네집”(1996)
  - ✓ 라오스의 코라오(현재 LVMC)
  - ✓ 미얀마 따웅지의 어묵(현재)

8

## II. 아세안에서 우리의 위상은?



9

## 아세안은 '이미' 제 2의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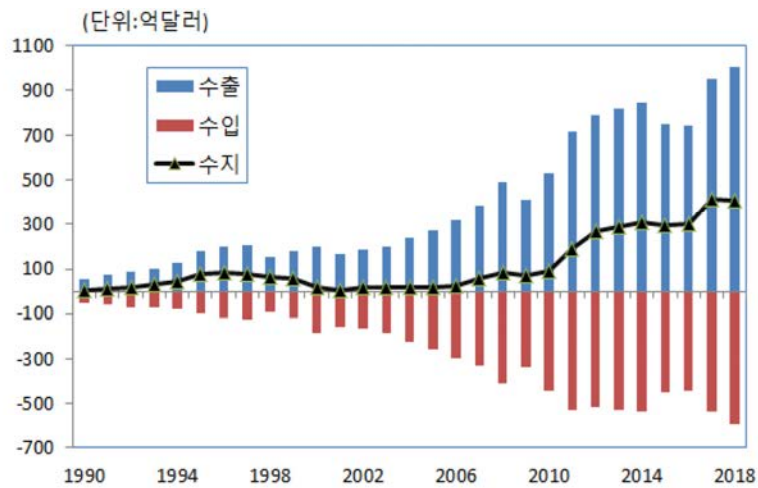
	교역	금액(억 달러)			비중(%)		
		2010	2014	2018	2010	2014	2018
중국	수출	1168	1,453	1,602	25.0	25.4	26.5
	수입	716	901	1,065	16.8	17.1	19.9
	수지	453	552	567	109.7	81.0	116.9
아세안	수출	532	846	1,002	11.4	14.8	16.6
	수입	441	534	596	10.4	10.2	11.1
	수지	99	312	406	24.0	58.0	66.1
미국	수출	498	703	727	10.7	12.3	12.0
	수입	404	453	589	9.5	8.6	11.0
	수지	94	250	139	22.8	19.9	53.0
일본	수출	282	322	306	6.0	5.6	5.1
	수입	643	538	546	15.1	10.2	10.2
	수지	-361	-216	-240	-87.0	-34.3	-45.8
전체	수출	4664	5,727	6,052	100.0	100.0	100.0
	수입	4251	5,255	5,352	100.0	100.0	100.0
	수지	413	472	7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10

## 만성적인 對아세안 무역 흑자

<한-아세안 무역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11



## 아세안은 중국에 버금가는 투자지역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2018년 9월말 잔존)>

(단위: 억달러, %)

	전체		제조업		제조업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계	4,378	100.0	1,407	100.0	32.1
<b>중국</b>	<b>627</b>	<b>14.3</b>	<b>488</b>	<b>34.7</b>	<b>77.8</b>
미국	1,029	23.5	188	13.4	18.3
EU	584	13.3	147	10.4	25.2
<b>아세안</b>	<b>599</b>	<b>13.7</b>	<b>264</b>	<b>18.8</b>	<b>44.0</b>
인도	57	1.3	48	3.4	84.6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

12

## 경쟁국보다 우수한 對아세안 경제 협력 성과

- 일본의 아세안투자자와 중국의 아세안 교역이 아세안과 동북아 협력의 중심
  - ✓ 일본의 투자는 1960년대 이후 아세안 경제구조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요소
  - ✓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아세안과 중국의 생산네트워크가 심화되고 교역이 급증
- 그러나 상대적 규모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은 중국 및 일본에 비해 우월
  - ✓ 한중일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수출과 투자잔액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에 비해 더 깊은 협력
  - ✓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도 상대적으로 가장 큼
- 일본의 對아세안 교역은 균형에 근사

<한국, 중국, 일본의 대동남아 경제협력 비교>

(단위: 억 달러, %)

	규모				비중			
	수출	수입	신규투자	투자잔액	수출	수입	신규투자	투자잔액
한국	1,002	596	48	552	16.6	11.2	11.1	13.7
중국	2,813	2,200	103	716	12.3	12.3	5.2	5.3
일본	1,144	1,121	220	2,045	15.5	15.0	13.1	13.2

주: 수출입은 한국과 일본은 2018년 실적, 중국은 2017, 투자는 한국과 일본은 2017년, 중국은 2016년 말 기준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중국 상무부, 일본 JETRO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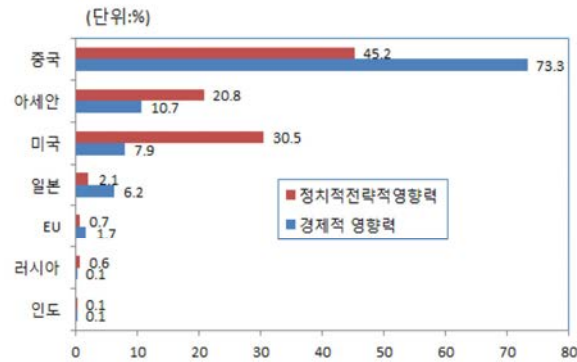
13



## 아세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절대적

-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세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부상
  - ✓ 아세안의 여론주도층의 73.3%가 중국이 경제적으로 아세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 대신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고 답한 비율은 7.9%에 불과
  - ✓ 정치적, 전략적 차원에서도 중국은 45.2%로 미국의 30.5%를 제치고 1위

<아세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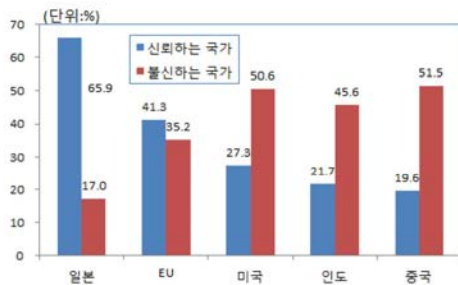


자료: ISEAS(2019)

14

## 일본은 소프트파워 국가로서 신뢰

- 아세안 여론주도층은 일본을 가장 신뢰
  - ✓ 중국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신뢰를 받고 있음
  - ✓ 불신 국가 순위에서도 일본은 가장 낮으며 대신 중국은 가장 높음
  - ✓ 불신국가 항목에서 미국과 중국이 큰 차이가 없는 상황
- 장학금을 받는다면 유학을 가고 싶은 국가로는 미국과 EU 가 가장 높음
  - ✓ 방문하고 싶은 나라에서는 EU와 일본이 높은 상태



15

### III. 메콩지역과의 경제·산업협력



16

### 메콩지역, 특히 CLM 국가의 경제·산업 수준 : 취약

- 메콩지역은 비메콩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
  - ✓ 메콩지역 국가 중에서도 태국과 베트남, 그리고 CLM 국가는 다른 발전 단계
  - ✓ 특히 CLM의 수출입규모는 다른 국가의 1/10에도 훨씬 미치지 못함
  - ✓ CLM 국가의 산업이 아직 미개발 상태기 때문

<메콩지역 경제상황(2017년 기준)>

	인구(백만명)	명목GDP (억달러)	1인당 GDP	수출(억달러)	수입(억달러)	FDI 유입(억달러)
아세안 전체	642	27,658	4,308	13,222	12,521	1,356
- 비메콩지역	405	19,812	4,893	8,428	7,804	1,051
- 메콩지역	237	7,846	3,308	4,794	4,717	305
태국	68	4,557	6,736	2,367	2,228	80
베트남	94	2,238	2,390	2,139	2,106	141
미얀마	53	656	1,229	139	193	40
캄보디아	16	223	1,421	113	143	27
라오스	7	171	2,531	36	48	17

자료: 아세안 사무국

17

## 사회개발 수준에서도 CLM의 수준은 낮아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 실태(2017년 기준)>

	1인당GDP(\$)	도시화율	유아사망(5세 이하, 1000명당)	중등학교 순취학률	인터넷이용률 (100명당, 2016)
태국	6,736	49.0	10.0	83.4(2010)	47.5
베트남	2,390	35.0	21.0	83.4	46.5
미얀마	1,229	30.0	49.0	60.9	25.1
캄보디아	1,421	23.0	29.0	37.1(2016)	32.4
라오스	2,531	34.0	63.0	34.7(2012)	21.9
인도네시아	3,872	55.0	25.0	78.0(2016)	25.4
말레이시아	9,899	75.0	8.6	90.2	78.8
필리핀	2,992	47.0	27.0	76.0	55.5
싱가포르	57,722	100.0	2.9	99.5(2016)	81.0
아세안 전체	4,308	48.5			

자료: GDP, 도시화율, 유아사망률, 취학률은 아세안 사무국, 인터넷이용율은 ITU

18

## 對베트남 교역증가로 메콩지역 무역급증

- 對아세안 교역은 계속 증가했으나 메콩지역 성장이 주도
  - ✓ 對아세안 교역 증가는 베트남과의 교역 증가 때문, 비메콩지역과의 교역은 정체
  - ✓ 무역수지도 주로 메콩지역 국가에 대해 흑자를 기록

<메콩지역 경제상황(2017년 기준)>

(단위: 억달러)

		2005	2010	2014	2017	2018
교역규모	아세안 계	535	973	1,380	1,490	1,597
	- 비메콩국가	429	725	923	702	751
	- 메콩국가	106	248	457	788	846
	태국	61	106	129	127	141
	베트남	41	130	304	640	683
	CLM	4	12	24	21	22
무역수지	아세안 계	13	91	312	414	405
	- 비메콩국가	-23	-2	137	70	82
	- 메콩국가	36	93	175	344	323
	태국	7	23	23	23	29
	베트남	27	63	144	316	290
	CLM	2	7	8	5	4

자료: 아세안 사무국

19

## 베트남 중심의 직접투자

- 메콩지역 투자는 전체 아세안 투자의 48.1%를 차지하고, 제조업 투자의 55.6%를 차지
  - ✓ 대아세안 투자의 44.0%가 제조업 투자지만 메콩지역에는 50.8%가 제조업 투자
- 베트남은 대메콩지역 투자의 가장 중요한 부문을 담당
  - ✓ 누계기준 68.7%가 베트남, 9%가 태국으로 진출
  - ✓ **메콩지역에 대한 제조업 투자의 83.5%가 베트남으로 갑**
  - ✓ **CLM 국가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 비중이 극히 낮음**

<메콩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단위:백만달러, %)

	2017		2018		누계		
	전산업	제조업	전산업	제조업	전산업	제조업	제조업비중
아세안	4,849	2,323	4,698	1,855	59,910	26,359	44.0
- 비메콩지역	2,318	791	1,747	280	31,082	11,708	37.7
- 메콩지역	2,531	1,532	2,951	1,575	28,828	14,651	50.8
베트남	1,955	1,398	2,472	1,492	19,819	12,227	61.7
태국	105	36	65	25	2,601	1,621	62.3
미얀마	278	71	139	36	3,250	391	12.0
캄보디아	137	28	244	21	2,678	398	14.9
라오스	57	0.4	33	0.3	480	14	2.9

주: 2018년 및 누계는 2018년 9월말 누계  
자료:수출입은행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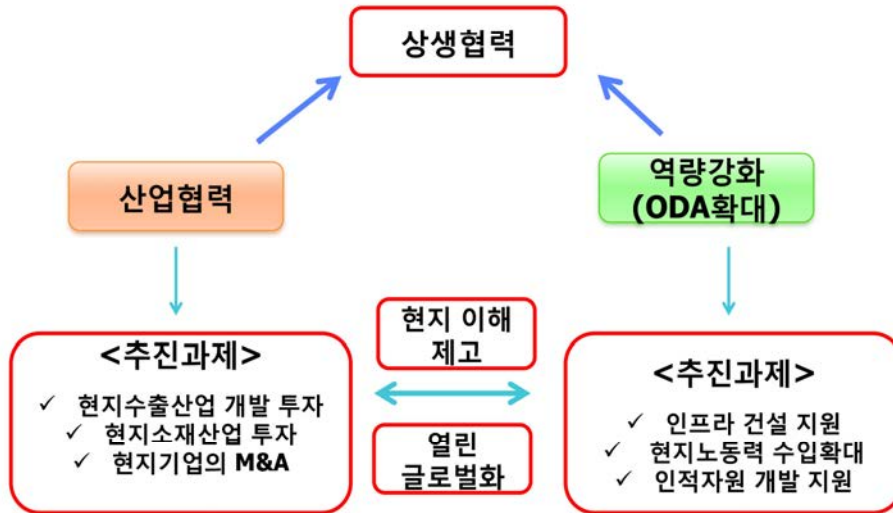
## 메콩지역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접근 필요

- 메콩 5국 경제의 특성은 3개 그룹으로 구분
  - ✓ 태국 - 베트남 - CLM 국가
- 태국은 아세안의 중심국가지만 최근 경제발전 정체
  - ✓ 1960년대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주도 경제발전
  - ✓ 혁신역량 부족으로 중진국 함정에 직면
  - ✓ 일본기업의 자동차, 다국적기업의 전자산업이 중심
- 베트남은 아세안에서 가장 활력이 높은 국가
  - ✓ 다국적기업의 진출(특히 전자)로 신흥제조기지로 부상
  - ✓ 다국적기업과 국내산업 연계도가 취약
- CLM 국가는 제조업 기반 없는 상황
  - ✓ 일부 봉제공업이 수출제조 부문을 담당
  - ✓ 외국인직접투자도 비제조업 부문으로 진출
  - ✓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 경제발전 전망이 불투명

21



## 對메콩지역 협력



22

## 산업협력과 역량개발 협력 동시 추진 필요

- **신남방정책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분리되어야**
  - ✓ 현재의 경제협력이 불균형적이며 우리에게 유리
  - ✓ 정부는 "사람"과 "상생"에 초점을 맞추고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지 말라
  - ✓ 장기적으로 정부는 아세안에서 우리의 소프트파워를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 **정부는 메콩지역 국가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역량개발을 지원**
  - ✓ 인적자원 개발 등에 ODA를 강화
  - ✓ 인프라 개발 지원
  - ✓ 노동력 취업 기회 확대
- **기업은 메콩지역 국가, 특히 CLM 국가의 경제 및 산업 협력 강화 필요**
  - ✓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무역(수입) 확대
  - ✓ 자원개발 투자, 현지 수출창출형 투자, M&A 등 활용
  - ✓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내구소비재 기업의 현지화(태국의 도요타)
  - ✓ CLM 국가 진출에서 태국과 베트남 역할 제고

23



## 우리의 메콩지역 이해도 증진

- **신남방정책 추진 후 우리의 대아세안 및 메콩 인식도 문제**

- ✓ 시장 창출형 중상주의적 마인드
- ✓ 아세안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이해 없는 상태
- ✓ 한류와 삼성전자가 주는 착시를 즐기고 있음

- **현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야**

- ✓ 메콩을 시장으로가 아닌 무엇을 함으로써 같이 성장할 것인가를 찾아야
- ✓ 대학생 조사팀 파견(메콩과 어떻게 사귄다?)

- **우리의 가슴을 열어야**

- ✓ 아세안 노동자들에 대한 시각
- ✓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호

24

## 메콩지역에 대한 ODA의 확충 필요

<한국과 일본의 메콩지역에 대한 ODA 지원 비교(총지출 기준)>

(단위: 백만달러)

	한국		일본	배(B/A)
	2015(A)	2016	2015(B)	
캄보디아	69.5	58.37	106.08	1.5
라오스	88.23	38.05	107.17	1.2
미얀마	23.91	47.4	351.13	14.7
태국	4.73	8.83	172.77	36.5
베트남	225.93	186.47	1,418.88	6.3
계	505.41	452.97	3,176.58	6.3

자료: 한국은 수출입은행, 일본은 외무성

25



끝

# 한-메콩 경제협력 기업 사례

박창영 롯데면세점 본부장



# MEMO

# 한-메콩 경제협력 기업 사례

강태영 포스코 경영연구원 연구위원

With POSCO

## 포스코 그룹의 메콩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적 시사점

- I. 메콩지역 철강산업 환경
- II. 포스코 그룹 사업 및 진출 현황
- III. 한국 산업과 메콩 벨트의 장기 발전

2019. 2. 28(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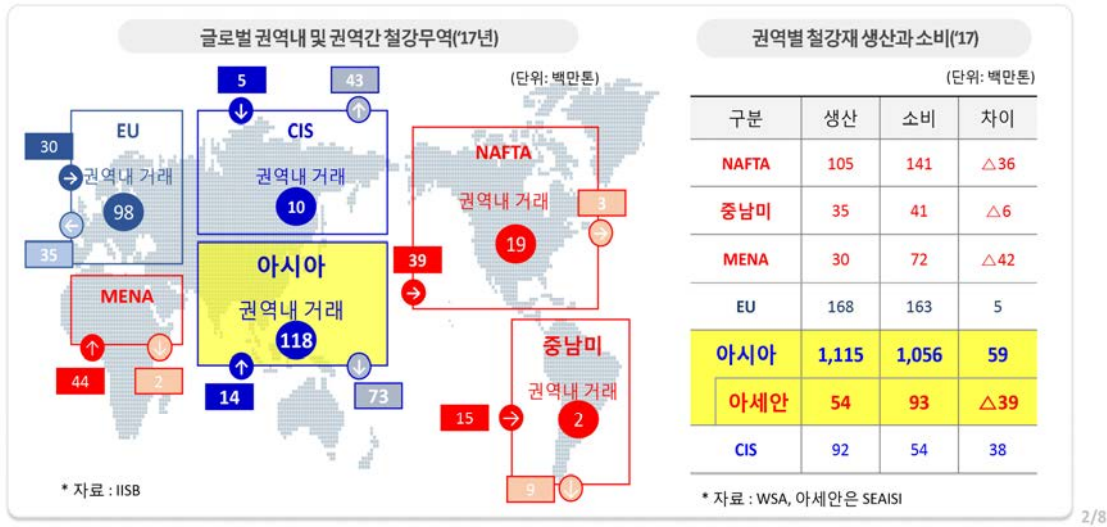
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태영



## 아시아는 세계 최대 철강 생산 및 소비 지역(60% 이상 점유)

한·중·일 중심으로 1억 2,000만톤의 역내 무역과 6,000만톤의 역외 순수출 발생

▶ 그러나 아시아 역내에서 아세안은 4,000만톤의 철강재 순수입 지역(중간재 포함시 6,500만톤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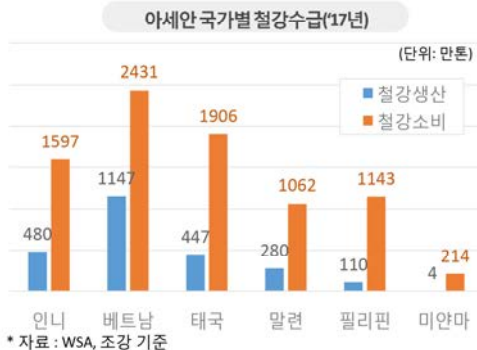


## 아세안, 최근 철강수요 성장세 반면 생산 부족 상태 지속

철강소비, '10년 이후 연평균 8.3% 성장(세계 평균 2.8%), 조강생산은 0.9% 증가

### 국가별 철강시장 규모의 편차 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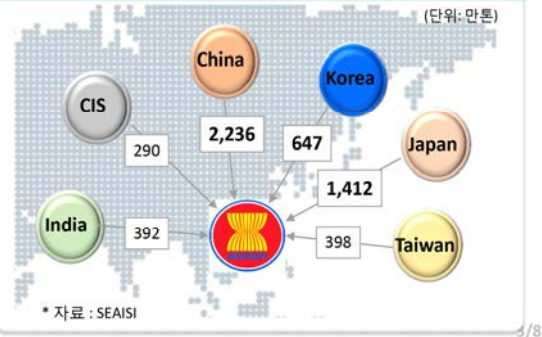
- ▶ 베트남, '15년부터 역내 최대 철강시장으로 급성장
  - 아세안의 전통적 선두국가인 태국과 최대 경제국 인니는 성장 정체
- ▶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아직 초기시장 형성기



### 철강 수입의존도, 국가별로 80~90% 육박

- ▶ 주요 수입국은 중국 > 일본 > 한국 순
  - 중국, 범용재 중심 다량 수출, 일대일로 전략 동반 생산기지도 확장
  - 일본, 자동차 등 고급재 중심으로 시장 선점, 일본계 기업 중심 공급

### 아세안의 주요 철강수입국(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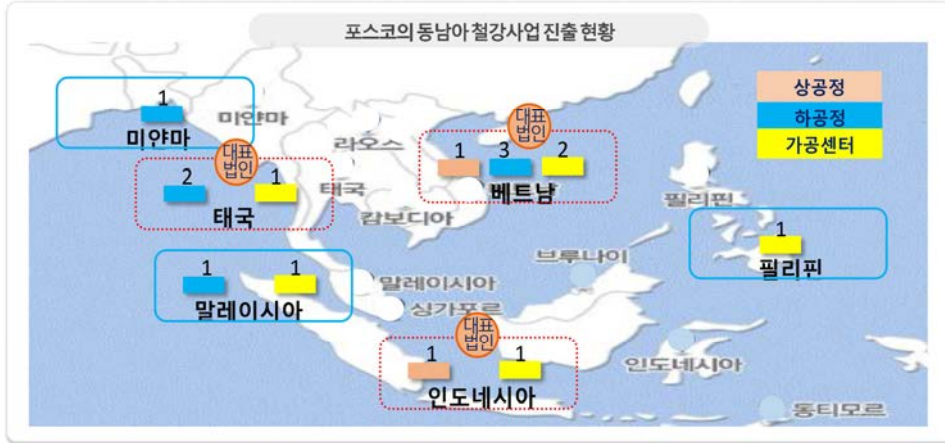


## 포스코, 단계적 투자로 하공정~일관밀 현지생산 체제 구축

현지 생산법인 및 가공센터 설치로 연간 약 400만톤의 안정적 수출기반 형성

▶ 상공정 400만톤, 하공정 240만톤, 가공센터 100만톤 능력의 현지생산 설비 운영

- 17년 기준 해외자산의 49%(연결기준)가 동남아 소재, 중국을 앞서는 포스코 최대 해외투자지역으로 성장
- 3개 대표법인(지역 Headquarter) 설립으로 철강과 그룹사업 통합 운영 및 종합적 지역 전략 실행



4/8

## 철강 外 자원개발건설 등 그룹사업 진출 및 적극적인 CSR 활동

### 철강사업 동반 진출 외 자원부문 등 독립 투자

- ▶ 자원, 에너지, 건설, 무역 등에서 그룹사 현지 진출
  - 천연가스, 팜오일 등 현지의 풍부한 자원개발 및 무역 확대 주력
  - 철강 포함 그룹 전체로 총 57개의 동남아 현지법인 활동 중

포스코 그룹사 동남아 대표사업

#### 미얀마 해상가스전 (포스코인태세넬)

- 1단계 : '10년~ 개발, '13년~ 상업생산
  - 투자비 약 1조원
  - 누적매출 약 조 2천억원('17년)
  - 파이프라인으로 중국수출
- 2단계 : '19년~ 개발 '22년~ 상업생산

#### 베트남 석탄발전소 (포스코에너지)

- 용량 : 1,200MW
- 준공 및 상업생산 : '15년
  - 25년간 베트남전력공사에 전기공급
  - 베트남 국영기업 생산 무연탄 사용
- 투자비 : 16백억 원
  - 美 AES사 개발사업에 30% 지분 인수 참여

### 현지에서의 사회적 책임활동 확대

- ▶ 스틸 Brand의 인프라, 환경개선 활동 중점 추진
  - 현지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사회 인프라 안전성 개선 활동
  -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인니 제철소 내 사회적 기업 설립 운영

#### 동남아 현지에서의 주요 CSR 활동

- 스틸 빌리지 사업: 베트남 주택 104채, 교량 1동, 미얀마 교량 1동, 태국 스틸 돐 3동 등
- 경제적 자립지원: 인니 사회적 기업 설립(청년 138명 고용)
- 봉사활동: 각국별 교육, 집짓기, 문화행사 개최 등



5/8



## 유망지역 조기진출 불구 국가별 발전격차와 경쟁심화 등 난제 有

### 포스코 사업 환경과 당면 과제

국가별 상이한 경제수준에 맞춰 진출 → Value Chain 연계성 부족

- **역내 효율적인 완결형 생산체제 미완성 상태**
  - 태국, 동남아 최고급재 시장 → 고급재 중심 설비투자
  - 베트남, 강건재 시장의 빠른 성장 → 건자재 중심 생산
  - 미얀마, 장기 성장시장 조기 선점 전략 → 지붕재 생산
  - 인니, 성장 잠재력과 연원료 장점 활용 목적 → 일관제철소 건설

고급재는 일본, 일반재는 중국과의 경쟁 가열

- **자동차 및 부품용, 고급 건설용 등은 일본 선점으로 시장침투에 어려움**
  - 태국, 인니 등 자동차시장, 일본계 브랜드가 90% 이상 점유
  - 각국 정부/유력기업과 장기 네트워크, 日정부-상사-제조사간 강력한 연계
- **일반재는 중국의 막대한 물량 공세, 최근 베트남 경우 가공수출도 급증**

취약한 현지 제조업 생태계로 철강생산 확대 한계

- **중간재 수입 후 조립생산하는 구조로 산업 생태계 취약, 성장 한계**

메콩벨트 국가간 균형발전 필요

▶ 역내 지속성장 가능성 제고

중일 영향력 확대 대응 필요

▶ "Team KOREA" 공동 전략

로컬 제조업 기반 성장 지원 필요

▶ 현지정부기업과 협력 확대

한국 정부와 기업 공동의  
對메콩 전략 필요

6/8

## 韓정부기업 공동으로 대형 메콩지역 협력 프로젝트 추진 필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신남방정책 '공동 번영(Prosperity)'전략의 대표 상품 선정, 실행

### 4차 산업 관련 'Korea Brand'의 메콩협력 사업 개발

- **아세안 각국의 4차 산업 정책과 연계한 정부 차원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

- 역내 선두국이 추진 중인 4차 산업 정책 조력 및 저개발국(CIM)과 연계한 확대사업 제안
- 스마트시티 모델 사업, 4차 산업연계 제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의 공동 프로젝트 개발
- 정부의 EDC\* 우수선 지원, 신흥 핵심전략국가 선정 및 수주지원 강화 계획과 연계

#### 동남아 국가의 4차 산업 혁명 관련 정책



→ 중일 Initiative의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과 차별화하는 '스마트시티' 대표사업화

✓ 역내 경제통합 및 균형발전에 기여

✓ 中日과 차별화된 협력모델로 영향력 확보

✓ 국내기업의 스마트사업 확대 및 역량 제고 기회

✓ 국내기업 기진출사업의 성장 기회 제공

7/8

## 남북 관계 활성화時 아세안을 해외협력의 플랫폼으로 활용

아세안은 남북한을 동등한 관계로 교류·중립성 유지, 남북관계 개선 과정 및 이후 역할 大

### 아세안을 남북 공동 해외협력 사업의 시험 기지와 플랫폼으로 활용

#### ▶ 아세안, 중립성 규범을 지켜오며 남북한과 오랫동안 유지해온 우호적 관계 자산 보유

- 한-아세안, 정치외교 및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ASEAN3 등 다자협력기구 공동 참여, 한국의 2위 교역대상 및 최대 무역흑자 대상 지역
- 북한 역시 아세안 10개국과 외교관계 유지 및 무역에서도 활발한 교류 지속(태국, 싱가포르 등 북한은 4·5위 교역대상국)
-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은 북한과 정치적 특수관계로 강력한 외교적 연계 및 전통적인 인적 네트워크 보유
  - 1·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선정의 배경

#### ▶ “한반도 평화 Agenda 활성화 플랫폼으로 최적지(文대통령 신남방정책 구상) “인 아세안 활용 전략의 구체화

- 아세안 중심성으로 중립성을 지키는 지역주의를 활용해 남북한 공동 해외사업 개발 방안 구상
- 특히, 메콩 저개발국 대상 북한과 공동 협력사업 추진 시기 기회 선점 가능성
- 남북협력 활성화 시 북한의 對아세안 수출 확대 전략과 연계해 경제협력 우선 사업 검토

\*현재 주류, 음료, 담배, 식품 중심에서 아세안 시장을 목표로 한 경공업 제품 생산 확대 등

# 감사합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태영





종합  
토론

# 한-메콩 정상회의 격상 및 평화번역 구축 세미나

좌장 **이현** 신한대 사회적가치추진단 교수





# MEMO



# MEMO